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10월

Vol.8

ISSN 2713-9387

모음

코로나 시대의 관광,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UAE, 이탈리아,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미국
- 17 2. 문화산업 :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 러시아, 호주, 중국, 일본
- 23 3. 문화재 : 호주, UAE
- 25 4. 체육 : 홍콩
- 26 5. 관광 : 프랑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미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이란,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스페인, 헝가리, 아르헨티나
- 34 6. 문화체육관광통계 : 독일,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42 1. 척박한 사막에도 한류의 꽃은 계속 피어난다

III 이달의 담론 | #코로나 시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I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10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UAE,
이탈리아,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미국
2. 문화산업 :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 러시아, 호주, 중국, 일본
3. 문화재 : 호주, UAE
4. 체육 : 홍콩
5. 관광 : 프랑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미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이란,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스페인, 헝가리, 아르헨티나
6. 문화체육관광통계 : 독일,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1. 문화예술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성공 개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100주년 축제, 특별 방역대책으로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 예정이던 잘츠부르크 100주년 축제가 특별 방역대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는 같은 시기 전면 취소된 독일의 바이로이트 축제와 스위스의 루체른 축제와는 상반된다. 잘츠부르크 축제는 기존 규모 대비 축소 개최(200회→110회 공연)되었음에도, 총 39개국에서 77,000명의 관광객이 모였으며 96%의 객석 점유율과 870만 유로(약 119억 4,136만 원)의 티켓 판매액을 기록했다. 또한, 축제 기간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 성공적인 문화예술행사 개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와 문화예술계도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특별 방역대책 성과에 매우 긍정적이다.

1. 잘츠부르크 축제 '축소 개최' 결정 배경

- 3월 초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 정상 개최 불투명
- 축제 조직위·잘츠부르크시·중앙정부 합의안 도출(4~5월)
- 축제 규모 축소, 특별 방역대책 시행 등 개최 대안 발표(2020.05.25.)

*본래 계획된 행사의 규모 축소

(44일/16개 공연장/200회 공연 → 30일/8개 공연장/110회 공연)

*10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공연(신작)은 내년으로 연기

2.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축제 개최를 강행한 배경

- '문화부흥'과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을 목표로,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1920년 제1 공화국 출범 이후 잘츠부르크 축제 탄생
- '문화국가'로 자부하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축제(금년 100주년)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와 같이 축제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소없이 축제를 개최한 만큼 2020년 축제 개최 의의를 강조

*잘츠부르크 축제(조직위)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민간단체로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재원 확보

3. 축제 성공 개최에 대한 주요 반응과 평가

- '문화예술 축제 개최와 방역 사이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 오스트리아 정부 :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코로나19 극복 가능성과 용기를 북돋아준 성과라고 평가
- 오스트리아 보건부장관 :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전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적용한다면 대형 문화예술행사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 각계 : 코로나19 위기에도 오스트리아 문화가 절대 시들지 않고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 잘츠부르크 시장 : “잘츠부르크는 우리 문화와 공동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
- 언론 : 전체 관광객 중 기존 축제 관광객이 65%이고, 처음 방문하는 신규 관광객이 35%를 차지, 잘츠부르크 축제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문화 상품임을 확인했다고 평가
- 조직위 : 코로나19 상황임에도 39개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발표

4. 축제에 특화된 특별 방역대책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

1) 수립 과정

- 4월 말부터 특별 방역대책 자문단 구성,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역할
 - 의사, 바이러스 전문가, 역학 전문가, 위생학자로 구성
 - 방역대책 수립, 추가 조치 개발, 행사 시행 전체 과정 지원
- 축제 주최측과 보건당국은 시·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방역대책 최종 승인 (2020.07.27.)

2)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공연관계자를 3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특화된 방역대책 시행

집단	특성	조치
적색 (red)	개인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연자/연주자	- 정기적 PCR 검사 - 건강·접촉 일지 작성
주황색 (orange)	경우에 따라 거리두기 가능, 마스크 착용 지속 가능	- 초기검사 - 건강·접촉 일지 작성
황색 (yellow)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지속 가능	- 초기검사

- 대규모 검사
 - 초기검사 : 행사 초기 모든 공연관계자 대상 검사 실시(총 1,000회)
 - 수시검사 : 적색군 관계자 대상 수시검사 실시(총 2,355회)
 - 의심 증상 검사 : 의심 증상 발생자 검사 실시(총 154회)
- 행동수칙
 -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적색군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이동 시 포함) 등 행동수칙 준수 요청

3) 행사 기간 안전·예방 대책

- 공연장 방역수칙(관객 포함)
- 공연 중 좌석 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비말 전파 방지를 위해 부채 사용 금지
- 관객 개인 간 거리(1m) 유지 준수 (*현장에서 수시 안내방송)
- 중간 휴식시간 폐지, 식음료 제공 불가
- 공연장 내 모든 입구와 기타 감염 우려 공간에 손 소독제 비치
- 객석 수 축소, 바둑판 형태 배치
- 유사시를 대비해 추적 가능한 티켓 판매(티켓에 개인정보 포함)
- 당국의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구매자 개인별 발권
- 공연장 입장 시 티켓과 신분증 함께 제시

*참고 : 100주년 행사 기념품에 마스크도 포함(1만여 장 판매)

4) 의료지원 확대

- 행사장 의료 지원단 규모 2배로 확대
- 24시간 연락 가능한 코로나19 핫라인 설치
- 코로나19 검사 대기조 운영(오스트리아 적십자)

폴란드

폴란드 정부, 문화예술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안전지침 발표

폴란드 정부는 문화예술기관(박물관·도서관)과 예술대학에 코로나19 관련 안전지침을 전달해 관람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박물관에서 단체관람을 진행하거나 대학에서 대면 수업 진행 시, 시설 운영 방안이나 일부 지정구역¹에 대한 특별 안전지침을 포함한다.

(출처: 폴란드 문화유산부 홈페이지, 2020.09.04.)

1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일부 지역을 '황색·적색 구역'으로 지정한다.

프랑스

프랑스 정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으로 20억 유로 투입 결정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에 20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프랑스 정부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제시한 1,000억 유로(약 140조 3,000억 원)의 부양책² 중 2%에 해당하며, 2020년 문화예술계에 제공된 긴급지원금(8억 5,600만 유로, 약 1조 2,000억 원)과 해당 업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지원금(8억 4,900만 유로, 약 1조 1,915억 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문화부는 2018년을 기준으로 문화산업이 ▲프랑스 GDP의 2.3%를 차지하고, ▲8만여 개의 문화예술 관련 기업 대다수가 중·소 규모이며,

2 '프랑스 재개(France Relance)'로 명명된 본 계획은 2022년까지 프랑스 경제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0억 유로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4%,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보다 4배 큰 규모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5%에 해당하는 67만 명의 고용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부는 ▲문화재, ▲공연예술, ▲고용·교육, ▲전략적 문화 분야 (인쇄·언론·영화·출판·시청각 분야), ▲5개년 '미래 전략'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 문화재 분야 (6억 1,400만 유로, 약 8,617억 4,900만 원)

지원금을 가장 많이 할당받은 분야는 문화재 분야이며, '공예·문화재 복원 사업'과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공예·문화재 복원 사업 (2억 8,000만 유로, 약 3,928억 1,480만 원)
- 빌리에 코테레트 성(Chateau de Villers-Cotterets) 복원 사업 (1억 유로, 약 1,402억 9,100만 원)
- 대성당 프로젝트(Plan Cathedrales) (8,000만 유로, 약 1,122억 3,280만 원)
- 지자체·개인 소유 문화재 복원 사업 지원 (4,000만 유로, 약 561억 1,640만 원)
- 국립 문화재 센터(CMN) 소속 문화재 복원 사업 (4,000만 유로, 약 561억 1,640만 원)
- 기타 문화재 지원 사업 (2,000만 유로, 약 280억 5,820만 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 지원 사업 (3억 3,400만 유로, 약 4,557억 3,966만 원)
-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국립문화재센터, 오르세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 퐁피두 센터, 유니베르 시영스 등

2. 공연 예술 분야 (4억 2,600만 유로, 약 5,976억 3,966만 원)

- 민간 공연 예술 분야 (2억 2,000만 유로, 약 3,086억 4,020만 원)
- 국립음악센터(Centre national de la Musique)를 통한 음악분야 지원 (2억 유로, 약 2,805억 8,200만 원)과 국립음악센터 자체 예산 증원(1,000만 유로, 약 140억 2,910만 원)
- 시설 극장 지원 (1,000만 유로, 약 140억 2,910만 원)
- 국가지원 공연 예술 분야 (2억 600만 유로, 약 2,889억 9,946만 원)
- 지방의 공연 예술 기관(극장, 서커스, 오페라,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등) 지원 (6,000만 유로, 약 841억 7,460만 원)
- 공연 예술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금 (2,000만 유로, 약 280억 5,820만 원)
- 국립 공연 예술 기관 (코메디 프랑세즈, 파리 국립 오페라, 필하모니 드 파리, 팔레 드 도쿄 등) 지원 (1억 2,600만 유로, 약 1,767억 6,666만 원)

3. 문화예술계 고용,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 지원 (1억 1,300만 유로, 약 1,585억 2,883만 원)

- 공연 예술·미술 분야 등 문화예술계 고용 지원 (1,300만 유로, 약 182억 3,783만 원)
-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술작품 주문 (3,000만 유로, 약 420억 8,730만 원)

-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세르지 미술대학, 리옹 콩세르바투아, 파리 콩세르바투아, 파리 미술대학, 노르망디 미술대학 등) 지원, 건물 유지 보수 사업,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 분야 지원 등 (7,000만 유로, 약 982억 370만 원)

4.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전략적 문화 분야' (4억 2,800만 유로, 약 5,981억 2,144만 원)

- 인쇄 언론 매체 : 파산한 인쇄 언론 매체 배포사인 프레스탈리스(Presstalis) 사태 타개안 등 (1억 4,000만 유로, 약 1,956억 4,720만 원)
- 출판 분야 : 서점, 출판사, 도서 배포 네트워크 개선 지원, 도서관 지원 (5,300만 유로, 약 740억 6,644만 원)
- 영화산업과 시청각 분야 :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를 통한 1억 500만 유로 규모의 영화산업 지원과 6000만 유로 규모의 국립영화센터 자체 예산 증원 (1억 6,500만 유로, 약 2,305억 8,420만 원)
- 공공시청각 분야 (7,000만 유로, 약 978억 2,360만 원)

5. 향후 5년간 '미래 전략' (1,900만 유로(약 258억 8,864만 원)의 감세, 4억 유로(약 5,450억 2,400만 원)의 지원금 제공)

- 문화산업 분야의 장기발전을 위한 부처 간(문화부, 재정부, 유럽부, 외교부) 협력 사업

(출처: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2020.09.03.)

독일

'문화, 새로운 시작(NEUSTART KULTUR)' 프로젝트

- 영화산업 지원 : 3,000만 유로(약 418억 2,630만 원)
- 총 지원금 중 1,900만 유로(약 264억 8,999만 원)는 독일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으로 제공
- 1,000만 유로(약 139억 4,210만 원)와 100만 유로(약 13억 9,421만 원)는 각각 독일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배급사에 제공
- '문화,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 전체예산에서 영화산업에 총 1억 6,500만 유로(약 2,300억 1,495만 원)를 지원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95, 2020.08.27.)

· 출판 산업 지원 : 2,000만 유로(약 278억 8,060만 원)

- 출판관계자는 신규 발행물 출판 시 최대 1만 유로(약 1,394만 원)의 지원금 신청 가능
- 서점의 경우, 판매망 디지털화를 위해 최대 7,500유로(약 1,045만 원)의 지원금 신청 가능

- ‘문화,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 예산에서 도산산업 진흥을 위해 총 2,500만 유로(약 348억 1,200만 원)가 책정됐으며, 이 중 400만 유로(약 55억 7,284만 원)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국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사용될 예정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90, 2020.08.21.)

· **클럽·라이브 음악 공연장 지원** : 2,700만 유로(약 375억 8,265만 원)

- 라이브 음악 공연장은 최대 15만 유로(약 2억 1,000만 원)의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 재개와 전염병 대응 지침 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문화,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신청 가능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88, 2020.08.21.)

· **음악축제·라이브 음악 공연 주최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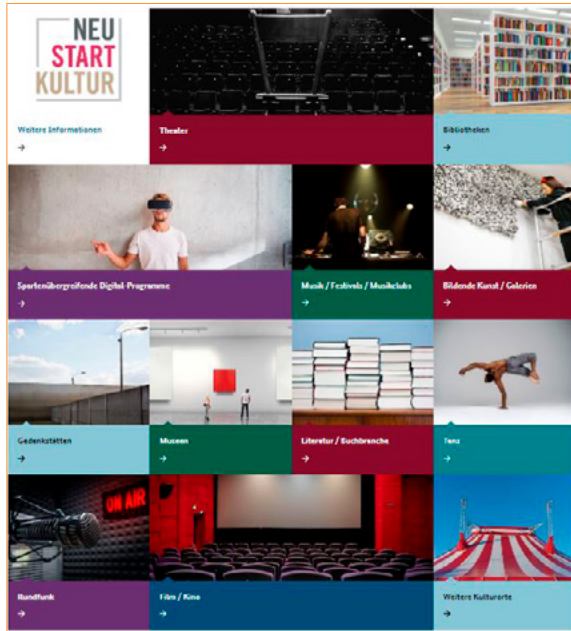
- 독일 내 음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최대 8,000만 유로(약 1,113억 5,600만 원)를 지원
- 음악축제 주최자는 최대 25만 유로(약 3억 4,844만 원),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 주최자는 최대 80만 유로(약 11억 1,501만 원)의 지원금 신청 가능
- ‘문화,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 예산 중 1억 5000만 유로(약 2,087억 7,30만 원)가 음악 산업 지원금으로 책정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83, 2020.08.19.)

· **시각예술 분야**

- 베를린 ‘문화·유럽부(Senatsverwaltung für Kultur und Europa)’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특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베를린의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 장학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신청 기간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이며, 총 2,000명에게 각각 9,000유로(약 1,254만 원) 제공
- 올해 유럽문화상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했거나, 정규직으로 취업상태인 예술가, 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예술가는 신청 불가능

(출처: 문화프로젝트 베를린 홈페이지)



2020-2021 특별 기금 프로그램 운영

독일 연방 정부 문화·미디어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020-2021 특별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만 7세 미만 자녀를 가진 예술가 지원

- 7세 미만 어린이와 독일에 영주하는 한부모 가정 예술가에게 총 12,000유로(약 1,663만 원)의 지원금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

②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 지원

- 독일에 영주하는 프리랜서와 독립 예술가를 위한 장학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총 9,000유로(약 1,246만 원)의 지원금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

③ 예술 소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 예술업계 관계자와 기관(갤러리, 예술 협회, 프로젝트 룸 등)의 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5만 유로(약 6,923만 원)의 지원금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지급

(출처: 예술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지원제도(Support Scheme for Arts & Cultural Sector)를 통한 4가지 유형의 보조금 지급

홍콩예술발전국(HKADC)은 2019년 활동을 중단한 중소 예술단체와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액을 기존 500만 홍콩달러(약 7억 6,600만 원)에서 5,500만 홍콩달러(약 84억 2,000만 원)로 확대했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제도 보조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유형 A~유형 D** 4가지로 구분된다.

· **유형 A 2019-2020 연간 보조금, 문학 플랫폼 프로젝트, 우수 예술단체 보조금 수혜자 대상**

- 기존 지원제도에 따르면, 최대 5만 홍콩달러(약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8만 홍콩달러(약 1,2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신청단체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교통비, 공연장소 예약취소, 공연 연기에 따른 추가 운영비)와 프로그램·활동 운영 불가에 따른 피해(공연티켓 판매 저조, 환불, 취소조치)등에 대해 세부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홍콩예술발전국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평가 후, 단체별 맞춤 예산액 지원

· **유형 B 자금지원 프로젝트(Funded Projects), 위탁 활동 프로젝트(Commissioned Projects) 대상**

- 2019년 7월 1일부터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 중 공연, 전시, 영화제작 등 비출판 부문 지원자에게 15,000 홍콩달러(약 230만 원), 출판 부문 지원자에게 3,000 홍콩달러(약 46만 원)의 특별 지원금 지급
- **자금지원 : 프로젝트 지원(Project Grant)** 예술단체와 업계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연장소를 제공하며 지원 분야는 무용, 영화, 시각예술, 연극 등으로 나뉘며 매년 2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자금지원 : 매칭펀드 제도(Matching Fund Scheme)** 중·소규모 예술단체의 수입원 확대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단체가 모금한 개인 기부금과 후원액에 대해 1대 1.5 비율로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 희망단체는 최소 3만 홍콩달러(약 460만 원) 보유 시 매칭펀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 150만 홍콩달러(약 2억 2,000만 원)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 **위탁 활동 : 교내 활동 장려(Arts-in-School Partnership)**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공연을 위한 시설·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단체에 학교 시설을 대여해줌과 동시에,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예술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유형 C 예술발전국의 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 프로젝트**(공연, 전시, 워크숍 등) 대상

- 2020년 1월 29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프로젝트(리허설과 준비 포함) 지원

- 전염병 방지기금(Anti-epidemic Fund)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여가문화서비스부의 문화 프로그램, 9개의 주요 예술 공연단체 프로그램(홍콩 필하모닉 등), 홍콩 아트 페스티벌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형 D 홍콩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상**

- 2020년 1월 29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활동을 중단한 실무자에게 1인당 최대 7,500 홍콩달러(약 115만 원) 지급

- 연간 보조금, 문학 플랫폼 프로젝트 등 타 지원제도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유형 D를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출처: 홍콩예술발전국 홈페이지, 2020.07.24.)

UAE

두바이 Jameel Art Center, 75명의 예술가에게 보조금 지원

두바이 문화부는 Jameel Art Center와 협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가에게 총 5만 디르함(약 1억 7,57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UAE, 파키스탄, 미국, 이란, 필리핀 등 17개 국적의 총 75명의 예술가에게 3,500디르함에서 7,000디르함 사이(약 111만 원~223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출처: 더네셔널, 2020.08.19.)

UAE 문화청소년부, 창의산업 분야에 2차 지원금 지원

UAE 문화청소년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문화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460만 디르함(약 14억 6,960만 원)이 개인과 단체 총 140 곳에 최소 15,000디르함에서 최대 75,000디르함(약 489만 원~2,396만 원)이 지급됐다.

(출처: 문화청소년부, 2020.08.11.)

이탈리아

중·소 출판사 지원금으로 1억 유로 배정

이탈리아 문화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중·소 출판사에 1억 유로(약 1,378억 7,300만 원)의 지원을 발표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출판사는 2019년 매출액의 1% 내에서 최대 2만 유로(약 2,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이탈리아에 본사가 있을 것
- ② 중·소기업으로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③ 2019년에 최소 도서 10권 이상을 출간했을 것
- ④ 사회보조금, 세금, 보험료의 납부 결여가 없을 것
- ⑤ 파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

(출처: 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 전국 10개 문화관광 거점지역 선정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은 지난 6월 30일까지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정된 지역 중 문화시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곳은 군마현립 역사박물관, 도쿠가와 미술관(나고야시), 오히라 미술관(쿠라시키시), 도쿄 텐노스 테라다 창고 예술복합시설 등이다. 군마현립 역사박물관은 관광 부서와 연계해 지역 가치와 소장유물을 홍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서구 방문객 증진을 목표로 하되, 일본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우선 도입해 10년 후에는 방문자 수를 현재의 2배인 연간 20만 명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점시설을 축으로 문화관광을 추진하는 지역은 야마나시현과 아소 등 6개의 지역이며 그중 나라현은 1,300건의 국보와 중요문화재를 활용한 체재형·유람형 관광을 목표로, 지역과 연계한 향토 음식 홍보, 야간박물관 개장, JR을 비롯한 지역 내 교통기관과 협업 등을 구상 중이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속화 급부금 지급

일본 경제산업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10억 엔(약 110억 원) 상당의 '지속화 급부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엔(약 2,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본 지원금은 사업 지속과 재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2020년 5월 1일(금)부터 2021년 1월 15일(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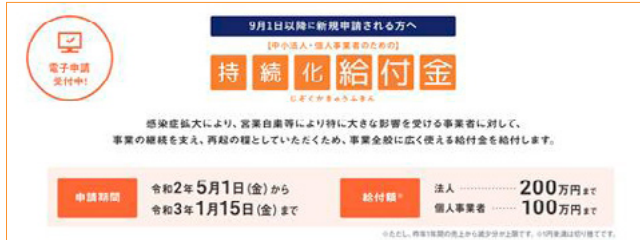
· 급부액: 법인-최대 200만 엔(약 2,225만 원)

개인사업자-최대 100만 엔(약 1,112만 원)

*단, 작년 1년의 매출액으로부터 감소분을 상한액으로 설정(1엔 미만은 절사)

(출처: 지속화 급부금 신청 사이트)

지속화 급부금 안내 화면 (사진출처: 지속화 급부금 신청 사이트)



9月1日以降に新規申請される方へ
【中小法人・個人事業者のための】
持 続 化 給 付 金
企業が影響を受ける事業に対して、
事業の継続を支え、再起の糧としていただくため、事業全般に広く使える給付金を給付します。

申請期間	給付額
令和2年5月1日(金)から 令和3年1月15日(金)まで	法人 200万円まで 個人事業者 100万円まで

※ただし、所得100万円の倍より超過分は上限です。※9月以降は9月以降です。

중국

온라인 '신(新) 문화·여행 발전 행동 방안(2020-2022)' 발표

상하이시 문화관광국은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을 육성하는 '신(新) 문화·여행 발전 행동 방안(2020-2022)'을 발표했다.

- ①신 디지털 기술 보급·운용 가속화
- ②우수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세분화·전문화 추진
- ③문화 관광산업과 도시 발전 중시
- ④문화관광 소비 특징·구조·습관을 정확하게 분석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비형태 육성

(출처: 상하이시 문화·여행국 홈페이지, 2020.09.13.)

신(新) 문화·여행 발전 행동 방안(2020-2022) 포스터

(사진출처: 상하이시 문화·여행국 누리집)



스페인

스페인 중앙정부, 도·시립 스페인 연맹(FEMP) 간 협정 체결

스페인 중앙정부는 도립·시립 스페인 연맹(FEMP, Federación Española de Municipios y Provincias)과 문화·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문화 홍보,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유산 복구, 기관 디지털화를 위해 총 50억 유로(약 6조 8,041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 2020.08.05.)

나바라 뮤지엄, 1,600점 이상의 소장품 온라인 전시 진행

나바라 뮤지엄(Museo Navarra)은 1,600점 이상의 소장품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본 온라인 전시의 목적은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연구, 소장품 등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바라주는 2023년까지 모든 소장품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출처: Europapress, 2020.08.03.)

러시아

제 5차 브릭스(BRICS)¹ 국가 문화장관 회의 개최

브릭스 국가 문화장관 회의는 문화 분야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협정 체결 5주년을 맞았다. 각국 문화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공동으로 진행해 온 우수 사업을 되돌아보며, 2017년 중국 천진에서 서명한 '2017-2021 문화 분야 협력'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매년 문화 관련 실무그룹을 구성해 문화 분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상호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러시아 문화부 홈페이지, 2020.09.03.)

제 5차 브릭스(BRICS)¹ 국가 문화장관 회의 (사진출처: 러시아 문화부 누리집)



¹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 5국,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일컫는다.

아트 바젤 마이애미 2020, 공식 취소

아트 바젤 마이애미 2020은 올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여행 제한 등의 상황을 고려해 공식 취소되었다. 올해 3월 개최 예정이던 아트바젤 홍콩과 6월 개최 예정이던 스위스 아트바젤 역시 취소됨에 따라, 2020년은 현대 미술박람회가 생겨난 이래로 한해동안 박람회 개최가 전무한 첫 사례가 되었다.

(출처: Art Basel Miami 사이트, 2020.09.02.)

2. 문화산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산업 진흥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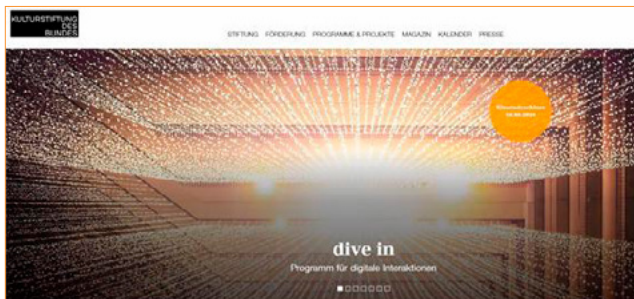
독일

독일 연방 문화재단, 디지털 상호 작용을 위한 'Dive In' 프로그램 개발에 500만 유로 지원

독일 문화기관은 대면 행사를 대신해 관객과 디지털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방 문화·미디어부는 연방 문화재단(Kulturstiftung des Bundes)이 진행하는 디지털 상호 작용을 위한 'Dive In' 프로그램 개발에 500만 유로(약 69억 2,305만 원)를 지원한다. 모든 문화예술기관은 'Dive I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앱, 게임, 가상현실, 증강 현실 응용 프로그램, 모션 캡처, 플랫폼 등) 구현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지원금은 최소 5만 유로(약 6,923만 원)에서 최대 20만 유로(약 2억 7,692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출처: 독일연방공보처 보도자료 275, 2020.08.13)

독일연방 문화재단 'Dive In' 프로그램 누리집 배너 (사진출처: 독일연방 문화재단 누리집)



러시아

2020년 상반기 문화 분야 지역별 정보활동 등급 발표

〈PRO.CULTURA.RF〉 포털 사이트는 러시아 연방과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소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더 많은 대중에게 문화행사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 내 85개 지역 문화기관은 125,000개 이상의 이벤트를 해당 플랫폼에 등록했고, 그중 110,001개(93,6%)는 지역·연방 홍보 파트너사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침체된 상황임에도,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플랫폼에 게시된 이벤트 수나 활동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PRO.CULTURA.RF>는 기관명, 이벤트, 장소, 홍보, 외부 소스 간행물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정보활동 등급을 부여하며 문화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 문화부는 2020년 상반기 문화 분야 지역별 정보활동 등급을 공개했는데,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보로네즈 주, 모스크바 주와 모스크바 시의 문화기관이 가장 활발했으며, 인구가 100~200만인 지역에서는 벨고로드 주, 체첸 공화국과 야로슬라브 주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인구 1백만 명 미만 지역 중에서는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와 캄차카 변경주가 각각 1위와 2위, 2019년 6위였던 마가단 주가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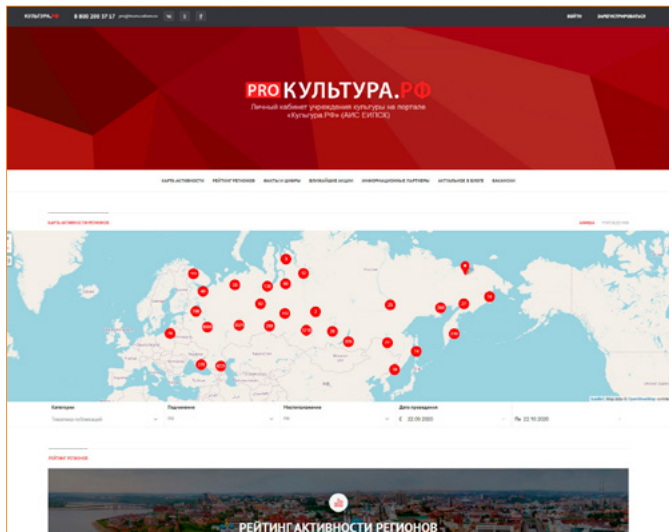
(출처: 러시아 문화부 홈페이지, 2020.09.08.)

<PRO.CULTURA.RF>, 홍보지원 파트너 수 확장

현재 <PRO.CULTURA.RF> 포털 사이트는 러시아 전국 15개 파트너사(Culture.RF, 러시아 문화부 홈페이지, Yandex afisha 등)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 행사를 홍보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문화행사 정보가 <PRO.CULTURA.RF>에 게시되었으며, 점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문화예술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PRO.CULTURA.RF>는 연방 프로젝트 '신세대의 도서관', 러시아 문화 스포츠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 'Afisha 7', 지역 포털 사이트 '야로슬라비아 컬처', 'Visit Udmurtia', '야말 컬처', 'Kamchatka afisha' 등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역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문화행사 소식을 전한다.

(출처: 러시아 문화부 홈페이지, 2020.09.11.)

<PRO.CULTURA.RF> 포털 사이트 배너 (사진출처: 해당 사이트)



스트리밍 플랫폼, BesTV+ 등장

상하이방송국(SMG)과 동방명주 뉴미디어 유한공사는 새로운 스트리밍 미디어 플랫폼 BesTV+를 출시했다. 해당 플랫폼은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단말기를 연결하고, 채널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등 ‘콘텐츠+서비스’ 듀얼코어로 5G 시대의 응용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쇼핑, 유통, 교육, 재정 서비스, 문화관광, 라이브 공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며, 상하이방송국과 동방명주가 보유한 전국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BesTV+ 스트리밍 플랫폼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상하이시 문화와 여행국 홈페이지, 2020.09.07.)

교육부 등 6개 부,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개선 관련 통지’ 발표

교육부·국가신문출판서 등 6개의 부서는 지난 8월 24일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개선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는 인터넷 게임중독, 불건전한 정보, 불량 커뮤니티 등으로 미성년자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넷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실명제도 도입,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용 지급 혹은 후원금을 요구하는 기업의 생방송 플랫폼 전면 개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발생하는 타인비방·인신공격·악의적 신고 등 온라인 폭력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있다.

(출처: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2020.08.19.)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숏폼’ 저작권 침해 사례와 주의 사항 안내

더우인(抖音/Tic Tok), 화산(火山), 리스핀(梨视频) 등 뉴미디어 플랫폼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숏폼’이 새로운 온라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8월 19일 ‘숏폼 저작권 침해 상황’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어 저작권 침해행위, 책임 인정, 공정한 이용 범위 등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고 업계 종사자에게 6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명시한 숏폼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타인이 제작한 숏폼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숏폼
- 타인의 저작물을 재구성해 전송하는 행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업계 관련 종사자에게 안내한 6가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숏폼에 저작자 표시 등 권리 보호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성명 표시
- 숏폼 라이선스 계약 시, 저작권 분쟁을 대비해 관련 거래 내용과 라이선스 계약 등 증거 확보
- 숏폼 이용에 있어 행위의 주체는 권리자·이용자·방송플랫폼으로, 권리자는

- 이용자의 침해 사실 발견 즉시 방송플랫폼에 전송 중단 요청이 가능하기에
권리자의 요청은 플랫폼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침해 기간, 침해 범위, 피고의 부당이득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증거 확보 필요
- 타인이 제작한 슷품을 이용할 시, 권리자의 이용허락 필요
- 타인의 슷품을 전송할 시 권리자의 이용허락 필요

(출처: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2020.08.20.)

온라인 교육산업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증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며, 그중 교육 업계의 성장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중국의 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중국 온라인 교육의 시장가치는 약 440억 위안(약 7조 6,221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향후 지속 성장해 1,500억 위안(약 25조 9,8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교육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도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업자에게 상표나 도메인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유명 교육기관의 이름을 도용해 영향력을 키우는 업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라인 강의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강의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결했는데, 온라인 강의 영상은 저작자가 주체성과 개성을 담아 제작했기에 영화와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분류되어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전송할 시, 저작물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Net Ease, 2020.08.27.)

상하이시,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한 'Diyidan(第一彈)' 앱 단속

'Diyidan(第一彈)' 앱은 2014년에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영상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영상 저작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 해당 앱의 이용자 수는 2,200만 명으로, 업로드된 콘텐츠의 수는 1억 개 이상이다.

· 'Diyidan(第一彈)' 앱의 운영과 관리

상하이 쓰간네트웍스(上海斯干网络科技有限公司)는 2019년부터 'Diyidan' 앱에 다수의 미국, 일본,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유료 회원들이 지불(충전)한 이용금액과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에 상하이 정간구 검찰은 해당 앱에서 무단 영상물을 배포한 22명의 피의자 중 16명을 저작권 침해죄, 나머지 6명을 저작권 침해·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 방조죄로 체포했다. 쓰간네트웍스는 사법감정¹ 첫 심사 당시, 해당 앱을 통해

1 소송과정에 사법기관이나 당사자의 위탁으로 감정기관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소송 중인 사건의 몇몇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감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약 2만여 편에 달하는 영상물을 무단으로 유통해 유료 회원비 992만 위안(약 17억 1,844만 원)과 광고비 2,426만 위안(약 42억 255만 원) 등, 총 3,418만 위안(약 59억 2,1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2020.08.20.)

아르헨티나 코로나19 대응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

① **문화산업 종사자 무이자 대출 지원**: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문화산업 종사자에 대한 은행 무이자 신용대출을 최대 15만 페소(약 24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 상환은 1년의 유예기간 후, 1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이 가능하다.

② **영상제작사업 신규 시행규칙 발표**: 아르헨티나 문화부는 문화발전청과 같은 산하 기관과 협력해, 영상제작 사업 진행 시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신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신규 지침은 보건·위생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교대근무, 보건수칙 준수 등이 있으며, 방송, 영화 등 영상제작 업계 종사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스페인 장편 영화제작에 4,000만 유로 지원 승인

스페인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장편 영화제작에 4,000만 유로(약 553억 8,440만 원)의 지원금 투입을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안이 최종 승인됐다.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ICAA(영화·시각예술기관)에 위임되며, 해당 지원금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산업 부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평등을 고려해 전체 지원금 중 20%는 여성 감독 장편 영화제작에 할당될 예정이다.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 2020.08.04.)

ICAA(영화·시각예술기관), 영화 상영관에 대한 특별 지원책 발표

스페인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금 제공을 승인했으며, ICAA(영화·시각예술기관)는 영화 분야와 상영관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 총 지원금 규모 : 1억 325만 2,000유로(1,429억 6,375만 원)
- 독립 서점 지원 : 400만 유로(약 55억 3,844만 원)
- 세계유산 지정 문화재 : 47만 유로(약 6억 5,076만 원)
- 영화 분야 관련 지원 명목 :
 - ①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드는 비용 충당, 영화관 재개관 홍보 등

*지원금 수혜자는 본 공고 이전에 ICAA(영화-시각예술기관)에 영화 관련 업체로 행정등록이 된 상영관을 가진 법인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스크린 보유 수에 따라 차별 책정

*1개 스크린 보유 상영관: 8,000유로(약 1,107만 원)

2개 스크린 보유 상영관: 14,000유로(약 1,938만 원)

3-5개 스크린 보유 상영관: 20,000유로(약 2,769만 원)

6-8개 스크린 보유 상영관: 26,000유로(약 3,599만 원)

8개 이상 스크린 보유 상영관: 32,000유로(약 4,430만 원)

② 단편영화 제작: 30만 유로(약 4억 1,538만 원) 특별 지원

*이 중 35%는 여성 감독의 단편 영화제작 지원

(출처: 문제부 보도자료, 2020.08.12)

호주

호주 정부 창의경제 태스크 포스(Creative Economy TF) 구성

호주 정부는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132억 8,250만 원) 규모의 '창의경제 일자리 창출(Jobmaker) 계획'에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창의경제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켰다. 태스크 포스 위원장은 호주현대미술관장인 엘리자베스 앤 맥그리거(Elizabeth Ann Macgregor), 부위원장은 전 퍼스 축제(Perth International Arts Festival) 위원장인 존 배링턴이 맡았으며, 그 외 10명의 문화예술계 인사가 태스크 포스 구성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처: 호주 연방기반시설교통부, 2020.08.24)

일본

대규모 이벤트 입장 상한 인원수, 9월 말까지 5,000명으로 규제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5월 이후, 문화공연이나 콘서트, 프로 스포츠 등에 있어 입장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 실내 시설의 경우, 당초 8월 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50% 이내라는 입장 인원수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대규모 이벤트 참가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9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입장 상한 인원수는 5,000명으로 규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3. 문화재

호주

해외 소재 85점의 호주 문화재·유물 환수

호주 원주민 연구기관(AIATSIS)은 전 세계 199개의 문화기관이 약 10만 점에 이르는 호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해외 소재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Return of Cultural Heritage Project)'를 통해 미국 일리노이 주립박물관, 영국 맨체스터 대학 박물관 등으로부터 부메랑, 방패, 창 등 85개의 호주 문화재와 유물을 돌려받았다. 호주 연방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호주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 5,76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호주 통신문화부, 2020.09.08.)

호주 '해외 소재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 포스터 (사진출처: 호주 원주민 연구기관)



UAE 문화청소년부, 알타에라 시리아크 가톨릭교회 복원사업 진행

UAE 문화청소년부는 유네스코와 협조해 알타에라 시리아크 가톨릭교회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UAE의 문화유적 복원뿐만 아니라 젊은 복원 전문가를 위한 교육, 기술자(석공, 목수, 석공, 금속 세공인 등)의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기회, 기술·직업 교육 등 문화재와 관련된 다방면의 사업을 지원한다.

(출처: 문화청소년부, 2020.09.10.)

알타에라 시리아크 가톨릭교회 (사진출처: UAE 문화청소년부)



4. 체육

홍콩

국민체육진흥 프로그램(Sport For All Day),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

홍콩 정부는 지역사회 스포츠 진흥 사업에 매년 40억 홍콩달러 (약 6,04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 왔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국민체육진흥 프로그램(Sport For all Day, 全民運動日)이다. 이 프로그램은 'Stay Active, Healthy and Happy!'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8월 초 18개 지역구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으며, 2017년 기준 연간 23만 명 이상의 홍콩시민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체육강좌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홍콩정부 여가문화서비스부)

5. 관광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 진흥책 제시

프랑스

국내 관광 활성화 지속 전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의 수요가 국내로 전환되면서 프랑스 남부 해변에 자국민을 비롯한 유럽 관광객이 집중됐다. 마르세유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여름 휴가 기간(7~8월) 동안 전체 승차권의 1/4 가량을 49유로(약 6만 7,800원) 이하로 판매하는 정책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교통비 인하에 따라 약 1,600만 명이 철도를 이용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85%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남부와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파리, 마르세이유, 리옹 등 대도시 시내 길거리에서는 8월 1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 전역 실내 공공장소(대중교통, 상점, 시청, 은행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35유로(약 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부슈 뒤 론)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 130여 명을 투입했다. 또한, 부슈 뒤 론 지역과 파리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위기 시, 시장(도지사) 권한 하에 이동제한, 집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액, 약 400억 유로로 추정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액이 약 400억 유로(약 54조 4,196억 원)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관광 수익 중 외래 관광객 지출 비용의 약 1/3을 차지한다. 에어프랑스는 올해 손실액을 29억 유로(약 4조 134억 8,400만 원)로 예상하며(1분기 16억 유로, 2분기 13억 유로 추정), 파리공항공단(ADP)은 전년 대비 -46.5%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지난 8월 10일 관광업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완전봉쇄 계획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감염확산 지역에 대해 영업금지나

자택 대기명령 등의 제한조치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관광산업 지원금 제공에 있어 수혜자의 범위를 기존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 행사업계 등에서 기념품 매장, 쇼핑몰, 통역사, 수상 교통업, 스포츠 배팅 운영사 등까지 확대했다. 주요 혜택은 일시적 실업 수당 지급, 연대 기금 조성·활용, 조세 납부 유예 등이다.

(출처: Lourdes, 2020.08.10.)

인도네시아 UEA, 한국, 중국과 손잡고 여행통로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는 UEA, 한국, 중국과 여행통로협정(TCA, Travel Corridor Arrangement)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의 체결은 팬데믹 기간 중 긴급 공무와 비즈니스 출장 등 특수 목적에 한해 국경을 개방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여행통로협정은 관광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 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은 팬데믹 중에도 다양한 투자 사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출처: iNews, 2020.08.21.)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ON), 관광분야 지침 마련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ON, The 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산업 재개를 위해 미러커미티(The National Mirror Committee)를 발족해 건강·안전조치 지침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미러커미티 위원장이자 국가 호텔관광협회 회장인 치카 발로군(Mrs. Chika Balogun)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라 건강·안전조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침은 손님·고용주·직원 간 신뢰를 높이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호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컨벤션센터, 여행사, 관광정보센터, 항공사, 해변과 같은 관광부문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Independent, 2020.08.09.)

미국 교통안전청, 여행자 신원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셀프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공항 내 여행자 신원확인 시, 사람이 아닌 얼굴 스캐너를 이용하는 비접촉식(안면인식) 셀프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다. 데이비드 페코스케(David Pekoske) 행정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 됨에 따라 건강·안전예방 조치로 여행자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일치시키는 비접촉식(안면인식) 셀프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면인식 카메라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20.09.05.)

여행자 신원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셀프서비스 프로그램 (사진출처: The Washington Post)



이집트

관광유물부, 관광시설 수용률을 절반으로 낮춰 관광업 재개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9월 1일부터 이집트 관광산업 활동을 재개했으며, 각 시설의 수용률을 최대 50%로 제한했다. 관광객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 리무진, 골프 카 역시 최대 50%의 수용률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상생활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광시설의 방역과 소독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Al-Ahram, 2020.09.08.)

9월 1일부터 박물관·유적지 전면 개방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9월 1일부터 이집트 내 박물관과 유적지를 전면 개방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9월 초 기자 피라미드 관계자와 관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출처: 이집트 고대유물부 공식 홈페이지, 2020.09.08.)

<이집트 박물관·유적지 관련 개방 조치 (2020.09.01.)>

- 박물관·고고학 유적지는 개장 전후 방역 시행
- 단체 관광객은 최대 25명으로 제한
- 여행사는 전 관광객과 운전자에게 마스크 제공
- 가이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박물관 내에서는 소독된 오디오 장비만 사용
- 시간당 박물관 최대 수용 관람객 수는 100명으로 제한
- *이집트 박물관(타흐리르 광장 위치)은 시간당 최대 200명으로 제한
- 기자 피라미드·유적지 무덤 내부는 크기에 따라 최대 10~15명 수용으로 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광업 활성화 로드맵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9월을 ‘관광의 달’로 지정하고 국내 여행을 촉구했다.

- 공급 유지: 관광부문 투자 촉진, 시장 접근성에 기반을 둔 계획 수립
- 수요 재점화: 국내 여행 마케팅 전략 수립,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역량 강화: 비자·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e-visa 시스템 등 편의성 제고 체계 구현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홈페이지)

터키

‘안전한 여행 자격증’ 의무화

터키 문화관광부는 ‘안전한 여행 자격증’ 지침의 세부내용을 개정해, 터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 여행객이 보건기관의 판단에 의해 병원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격리준수 문서에 서명 후 기존에 이용하던 숙박시설 내 지정된 방에 묵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각 호텔은 보유하고 있는 총 객실 규모에 따라 추가로 격리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격리공간의 경우, 객실 50개인 호텔의 경우 1개, 51~100개 객실 보유 호텔은 2개, 101~150개 객실 보유 호텔은 3개와 같이, 객실 50개 당 1개의 격리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객실 보유 개수가 500개이거나 그 이상인 호텔은 10개의 격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8월 말 현재까지 터키 내 2,480개의 호텔이 ‘안전한 여행 자격증’에 신청했고, 2,189개 호텔(터키 문화관광부 승인 1,588건, 지자체 승인 601건)에 자격증이 발급됐다.

(출처: Hurriyet 신문, 2020.08.23. / 2020.08.25.)

이란

영세 숙박업체에 부가가치세 면제,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제공

올해 초 이란 정부와 문화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영세 숙박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저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성급 이하의 호텔에 적용된다. 그러나 호텔협회는 해당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며, 이란의 관광업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Financial Tribune, 2020.08.15.)

태국

연휴 기간 내 다양한 지원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

태국 정부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연휴 기간에 국내 여행을 장려해 약 70억 바트(약 2,611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이 중 약 10%가 관광수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 정부는 숙박 지원에 있어 기존 5박을 10박까지 연장했으며 식사쿠폰과 관련해, 주중 최대 900바트(약 3만 3,500원), 주말 최대 600바트(약 2만 2,000원)를 지원하는 등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출처: POST TODAY, 2020.09.07.)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이던 ‘푸껫모델’ 승인 보류, 재검토 중

태국 총리는 관광체육부가 제안한 ‘Safe and Sealed’의 후속계획인 ‘푸껫모델’의 승인을 보류하고 전격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재검토 지시 배경

- 태국에서 100일 만에 지역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타일랜드 롱스테이’라는 업체의 독점운영 우려
- 푸껫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 선부르게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보다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90일 장기비자발급으로 국내 관광 독려

· 2가지 모델

- 1번 모델 : ‘타일랜드 롱스테이’ 또는 ‘타일랜드갯간 롱스테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이 태국입국목적을 신고하고,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 푸껫주 내에서 관광 가능, 다른 주로 이동할 때는 총 21일간의 격리 기간이 필요
- 2번 모델 : 일정 지역에서 격리가 가능한 방안
 - ① 푸껫에 위치한 2개의 병원(방콕병원, 씨리룻병원)에서 도착과 동시에 코로나19 검사시행
 - ② 정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사자의 상태와 동선 파악

③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해 최소 50개의 응급 병상 확보

④ 관광객을 밀착해 감시할 수 있도록 관광객 그룹을 목적에 따라 분류

(출처: 방콕포스트, 2020.08.06.)

항공업계 대상으로 240억 바트의 연차관¹ 편성

태국 7개 항공사 대표(타이스마일, 방콕에어, 녹에어, 타이라이언에어, 타이비엣, 타이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X)는 8월 28일 총리와 면담을 통해 다음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① 240억 바트(약 9,338억 원) 규모의 최저이자율 연차관 편성

(7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총 직원은 약 2만 명 정도이며, 최대한 인원 감축·해고 없이 재정위기 극복)

② 항공유 세금인하 추가·연장

③ 항공기 주차비 면제, 이 착륙료 면제, 기타 출입국 공항세, 봉사료 등 면제

(출처: Prachachat, 2020.08.28.)

¹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따위의 유리한 조건을 지닌 차관을 말한다.

싱가포르

모든 국민에게 100달러의 관광 바우처 지급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 모두에게 100달러의 관광바우처(SingapoRediscover Vouchers)를 지급하기로 했다. 관광 바우처는 10달러 단위로 발급될 예정이며, 관광명소 티켓이나 단체 관광상품 구매, 숙박업소 예약 등에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관광명소에서 아동·청소년 입장권 구매 시, 1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 기간 내 최대 6장의 아동·청소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 바우처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다.

러시아

러시아 정부, 관광청에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승인

지난 8월 27일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내 관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관광청에 12억 루블(약 183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보조금을 숙박시설 조성(캠핑장, 자동차 캠핑, 호텔 등)과 생태 관광 사업지원에 투자하고, 새로운 관광 경로 개발, 기존 경로 개선, 장애인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출처: 러시아관광청 홈페이지, 2020.09.01.)

스페인

엑셀투르, 올해 약 1,000억 유로의 관광 손실 예상

지난 6월 말 EU 국가 간 국경이 개방되었음에도, 7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영국은 모든 스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스페인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엑셀투르(Exceltur, 관광협회)는 스페인 관광산업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을 새로 추정했는데, 지난 추정치보다 150억 유로(약 20조 6,560억 5,000만 원)가 더해져 총 987억 4,300만 유로(135조 9,760억 2,301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올해 상반기 손실액 : 434억 6,000만 유로(약 59조 8,066억 980만 원) / 하반기 손실액 : 552억 9,300만 유로(약 552억 9,300만 유로)
- 여름휴가 기간 손실액 : 366억 3,800만 유로(약 50조 4,186억 5,094만 원)
- 관광부문의 손실은 GDP에도 영향을 미쳐 2분기에 18.5%가 하락, 전체적으로 약 15%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고용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약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는
카탈루냐 주 : 2019년 대비 200억 유로(약 27조 5,414억 원) 손실 예상
안달루시아 주 : 2019년 대비 151억 1,800만 유로(약 20조 8,185억 4,426만 원) 손실 예상
발레아레스 제도 : 2019년 대비 127억 1,700만 유로(약 17조 5,122억 원) 손실 예상
- ‘출장, 세미나’ 등으로 국제적 도시인 마드리드 지역의 손실액은 126억 8,500만 유로(약 17조 4,562억 905만 원)로 전년 대비 관광수입이 6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출처: ABC, 2020.08.19.)

헝가리

헝가리 관광청, 8월 국내 관광 최고치 기록

헝가리 관광청(MTÜ)은 올해 8월 국내 관광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객 180만 명 중 150만 명이 국내 관광객으로, 전년 국내 관광객 수인 120만 명 대비 약 30만 명 증가했으며 총 숙박일 540만일 중 440만일을 국내 관광객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작년에 헝가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60%가 부다페스트를 선호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의 93%가 부다페스트가 아닌, 교외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출처: Portfolio, 2020.09.17.)

아르헨티나 관광산업 부흥법 논의 중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관광업계(호텔·숙박업체, 관광상품 판매업체, 차량업체, 기념품 판매상점 등)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관광산업 부흥법(180일 발효, 행정부가 기한 연장 가능)'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총 예산액은 약 500억 페소(약 7,736억 1,080만 원) 규모이다.

관광업계를 위한 혜택

- ① 고용과 생산을 위한 지원(ATP) 프로그램 연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이 30% 이하로 떨어진 업체에 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혜택 연장
- ② 고용부담금과 추가 임금의 95% 감면: 정부는 업계 종사자 임금의 50%까지 지원
- ③ 관광산업의 일자리와 영업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석장관에게 권한 위임, 두 달 치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원 제공
- ④ 사업 관련 재산세, 소득세 등 기존 세금 납부 기한(12월 31일)을 180일 연장
- ⑤ 연방세입청 또는 연금관리국(ANSES) 관련 규제 180일 동안 중지
- ⑥ 중앙은행을 통해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인 지방 도시에 신용대출 제공

소비자를 위한 혜택

- ① 월수입이 최저임금 4개월 치 미달인 가정에 국내 여행(1회) 비용 지급
- ② 사전예약 시, 국내 관광상품 가격의 50%를 정부가 대출 지원
- ③ 노년층을 대상으로 비수기 관광상품 가격의 21%를 정부가 지원
- ④ 중앙은행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광상품 프로그램 마련
- ⑤ 관광업계는 봉쇄령 이후, 12개월간 사용 가능한 관광 상품권을 제공하며, 소비자 환불 요청 시 60일 이내에 최대 6개월 간 분할 환불 가능(소비자가 중개인·여행사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상품권으로 환불 가능)

(출처: La Nacion, 2020.09.21.)

6. 문화체육관광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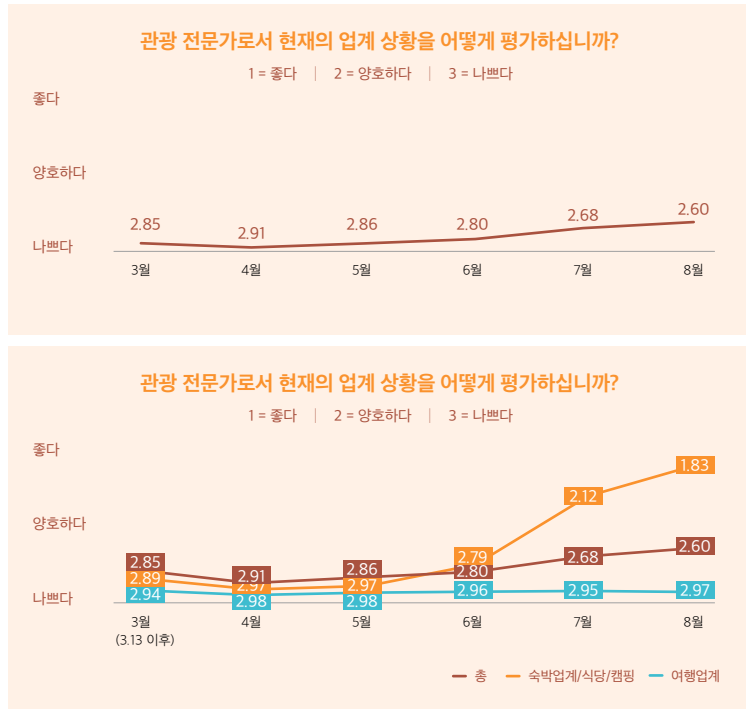
독일

관광 전문가가 평가한 독일 관광산업의 현황

독일연방관광역량센터(Kompetenzzentrum Tourismus des Bundes)는 올해 3월 31일부터 독일 관광산업 전문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독일 관광산업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는 관광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5월에 이동 제재가 완화된 후 호텔 업계에서 약간의 상승세가 있었지만 관광산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독일연방관광역량센터 홈페이지, 2020.09.01.)

설문조사



2020년 상반기 출판 산업 동향

일본 전국출판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일본 출판물 판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7,945억 엔(약 8조 8,300억 원)을 기록했다. 출판 시장은 종이 서적 판매가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적 판매가 28.4% 증가해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재 일본의 출판 시장에서 전자서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2.2%로 스마트폰 보급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전국출판협회, 2020년 7월호)

출판물		2019년 상반기 (억 엔)	2020년 상반기 (억 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점유율 (%)
종이	서적	3,626	3,517	97.0	44.3
	잡지	2,745	2,667	97.1	33.6
	종이합계	6,371	6,183	97.1	77.8
전자	서적	1,133	1,511	133.4	19.0
	서적	166	191	115.1	2.4
	서적	73	60	82.2	0.8
	서적	1,372	1,762	128.4	22.2
종이+전자	합계	7,743	7,945	10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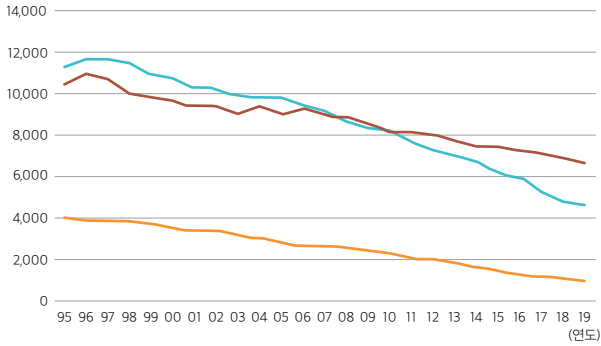
종이 출판물 시장 동향

일반 서적 1996년을 정점으로 장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잡지에 비하면 감소폭은 완만한 편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베스트셀러 작품의 발간 여부에 따라 연간 판매 실적의 변동이 크며, 최근 들어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살림살용서, 자기 계발서, 비즈니스 서적 등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동서적의 판매가 일정히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잡지 월간지와 주간지 등 잡지 서적 판매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이후 2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월간지는 휴간 종수가 창간 종수를 웃돌며 발행 종수도 13년째 감소 중이다. 부록 상품이 포함된 잡지나 인기 아이돌이 등장한 호수만 단발적으로 판매 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속보성을 중시한 주간지는 거의 모든 장르가 10% 가까이 감소해 판매액도 1억 엔(약 11억 1,100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지만 꾸준히 팔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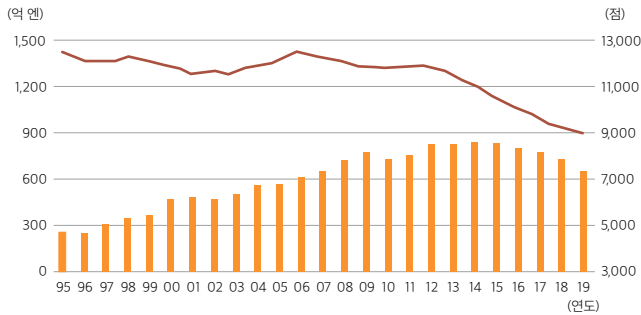
출판물 추정판매금액 (단위: 억 엔) 월간지 서적 주간지



(출처: 전국출판협회, 출판지표 연보 2020년)

보급판 문고본 출판물 전반에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급판 문고본의 감소량이 두드러진다. 히가시노 게이고, 미나토 가나에 등 스테디셀러 작가의 작품과 영상화된 작품에만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SNS를 비롯한 게임, 동영상 등 무료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문고본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된다.

문고본 추정판매금액 — 판매금액 신간 점수



만화 종이만화 시장은 미미한 감소에 그쳤다. 23년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귀멸의 칼날』 등 히트작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 해적판 사이트 폐쇄 영향으로 전자만화 판매량이 30% 가까이 대폭 증가해 처음으로 전자만화가 종이만화 판매를 앞질렀다.

인쇄 산업 현황

코로나19는 인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생산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20년 2분기 인쇄 산업의 생산총액은 약 808억 엔(약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으며 1사 분기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인쇄산업 생산총액

구분	2018년 2분기(4~6월)	2019년 2분기(4~6월)	2020년 2분기(4~6월)
인쇄산업 생산금액 (단위: 백만 엔)	92,249 (2.0)	92,673 (+0.5)	80,811 (-12.8)
제품별(출판인쇄)	15,437 (3.0)	14,615 (-5.3)	13,413 (-8.2)
제품별(상업인쇄)	34,706 (1.9)	33,348 (-3.9)	26,538 (-20.4)
제품별(건강재인쇄)	4,335 (1.9)	4,303 (-0.7)	3,225 (-25.1)
제품별(기타인쇄)	4,086 (1.8)	4,026 (-1.5)	3,414 (-15.2)

(출처: 생산동태통계 월보, 경제산업성)

그중 출판 인쇄의 생산총액은 8.2% 감소한 134억 엔(약 1,500억 원)으로, 20%를 웃도는 큰 감소폭을 보인 건강재 인쇄와 상업인쇄에 비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출 자제에 따른 도서 소비 증가와 전자서적의 강세

한편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 소비 상황 조사'에 따르면 한 가정이 1개월간 소비한 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포함한 2사분기에서 서적 항목에 대한 한 달 평균 지출액은 8,845엔(약 9만 8,000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1분기 금액인 8,020엔(약 8만 9,000원)에 비해 10.3%, 전년 동기기간인 7,963엔(약 8만 8,400원)에 비해 11.1%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서적에 대한 지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2분기의 전자서적 지출액은 4,515엔(약 5만 원)으로 1분기 3,827엔(약 4만 2,000원)에 비해 18%, 전년 동기 금액인 3,845엔(약 4만 2,700원)에 비해 17.4%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세대 당 도서구입 지출금액

	2018년 2분기(4~6월)	2019년 2분기(4~6월)	2020년 1분기(1~3월)	2020년 2분기(4~6월)
종이서적	4,403	4,118	4,193	4,330
전자서적	3,666	3,845	3,827	4,515
서적(종이+전자)	8,069	7,963	8,020	8,845

(출처: 총무성 가계 소비 상황 조사)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외출 자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표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베스트셀러 7개 작품을 처음으로 전자서적으로 출간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서점을 지키고자 전자서적에 반대해 왔던 작가들의 태도 변화가 앞으로 전자서적 시장에 가져올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캐나다

팬데믹 시기, 문화행사 참여·관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캐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나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는 코로나19 이후 실내외 문화예술 행사 참여 의사에 대한 캐나다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 1,000명에 대해 예술 반응 추적 설문조사(ARTS)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는 전국 예술단체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시설 재개·운영 절차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실내 문화 활동에 대해

- 당장 참여 : 코로나19 이전 실내 문화 활동 참가자 중 26%는 “당장 실내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답변,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로 거리두기(32%)와 마스크 착용(27%)을 선택

- 5개월 내 참여 : 20%의 응답자는 실내 문화 활동 재개 5개월 이내로 실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변, 이들 중 안전 예방조치로 42%가 물리적 거리두기, 29%가 마스크, 23%가 백신을 선택

-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참여 : 18%의 응답자는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실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변, 이들 중 44%가 백신을 원하고 32%가 물리적 거리두기 방침이 필요하다고 답변

- 확신 없음 : 35%의 응답자가 문화시설 재방문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변, 이들 중 37%는 백신 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27%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자리 잡히기 전까지 실내 문화 활동 재개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변

- 참여 계획 없음 : 1%의 응답자가 실내 문화 활동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

• 실외 문화 활동에 대해

- 즉시 참여 : 39%의 응답자는 실외 문화 활동이 재개되는 즉시 참여하겠다고 답변,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로 물리적 거리두기(47%), 마스크 착용(25%), 손 소독제(22%)를 선택

- 5개월 내 참여 : 17% 응답자는 5개월 이내로 참여의사를 표현, 이들 대부분 역시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로 물리적 거리두기(53%)와 마스크 착용(26%)을 선택

-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참여 : 13%의 응답자는 6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참여하겠다고 답변,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로 백신(39%), 거리두기(37%), 마스크(26%)를 선택

- 확신 없음 : 32%의 응답자는 실외 문화 활동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변, 이들은 거리두기가 안정화되고(30%),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27%) 문화 활동에 대해 확신이 생길 것이라고 답변

-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없음(0%)

• 갤러리와 박물관 방문에 대해:

- 즉시 방문 : 30%의 응답자는 문화시설을 재개하는 즉시 방문하겠다고 답변

- 5개월 내 방문 : 15%의 응답자는 문화시설을 재개하는 5개월 이내

방문의사 표현

- 6개월 이상 지켜보고 방문 : 12%의 응답자는 6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방문할 계획이라 답변

- 확신 없음 : 42%의 응답자는 문화시설 재방문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변

- 방문 계획 없음 : 1%의 응답자는 문화시설에 대해 방문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변

중국

중국 오디오 콘텐츠 시장 현황

중국 아이리서치(i-Research)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중국 인터넷 오디오 업계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인터넷 오디오 업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1% 증가한 175억 8,000만 위안(약 3조 216억 5,040만 원)이며, 가입자 규모는 4억 9,000만 명으로 전년보다 30.4% 증가해 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오디오 사업은 오디오 프로그램(팟캐스트), 오디오북(라디오 드라마), 오디오 생방송 등을 포함한다.

• 콘텐츠 생산·전파의 주역이 된 DJ

청정FM(QingtingFM, 蜻蜓FM)은 현재까지 35만 명의 전문 DJ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인사를 DJ에 합류시키면서 유료 회원을 끌어들이며 거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DJ는 오디오 콘텐츠 사업에 있어 생산자이자 전파자로서, DJ의 성격과 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따라 오디오 청취 연령층에 큰 영향을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오리지널 저작물의 시청각 일체화

상하이 박람회에서 '책, 영화, 오디오' 등 우수한 IP가 소개됐다. 위에원그룹(阅文集团)이 개발한 '오디오' 상품은 현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오디오 구독 회원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디오 플랫폼에서 선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서적으로 인쇄하거나 출판하면서 새로운 사업 형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오디오 공유 플랫폼 ‘히말라야’는 콘텐츠 확보를 위해 출판사와 계약을 하거나
국내외 서적의 판권을 사들이는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 중국 지적 재산 정보 네트워크, 2020.08.26.)

러시아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아웃바운드 시장, 전년 대비 62.2% 감소

러시아국경수비대가 발표한 아웃바운드 수요는 총 8,019,4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분기 9.7% 감소, 2분기에는 96.55% 감소했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62.2%가 감소했다.

• **상반기 아웃바운드 상위 10개국** 핀란드(878,111명, -51.15%),
우크라이나(620,266명, -42.6%), 카자흐스탄(587,104명, -60.6%), 태국(506,463명,
-26%), 에스토니아(411,879명, -53.5%), 터키(342,302명, -87.5%), 아랍에미리트
(324,296명, -37.3%), 독일(271,405명, -60.5%), 중국(230,813명, -80.9%)
*한국(60,155명, -61.9%)

• **2분기 아웃바운드 상위 10개국** 핀란드(64,400명), 카자흐스탄(55,102명),
우크라이나(51,584명), 중국(44,168명), 리투아니아(22,303명), 에스토니아(16,967명),
라트비아(11,699명), 아제르바이잔(10,714명), 폴란드(9,574명)
*한국(9,055명)

(출처: 러시아여행업협회, 2020.08.05.)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척박한 사막에도 한류의 꽃은 계속 피어난다

척박한 사막에도 한류의 꽃은 계속 피어난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집트에서 만난 한류

우리에게겐 여전히 낯설고 먼 나라. 역사책이나 TV 기행 프로그램을 볼 때면 가끔씩 관심이 가지만 이내 우리의 주된 관심에서 밀려나는 나라, 이집트. 그곳에도 한국문화를 동경하며, 한국과 소중한 연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한국인보다 더 깊이 한국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집트의 한류 팬들이다.

지난 2018년 2월, 문화원장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맞은 문화행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K-Fans Got Talent'라는 한국문화를 즐기는 현지인을 위한 행사였는데, 참가자들 모두 얼마나 K-Pop을 좋아하고 한국말을 잘 하던지, 신선한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고, 척박한 곳에서 처음으로 한류의 싹을 피웠을 전임자의 노고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럼 이집트의 한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성장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집트에서 한류는 2004년 드라마 '가을동화'가 이집트 국영 TV에 방영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거부장적인 아랍 남성과 달리 따스한 한국 남성의 매력에 많은 이집트 여성 팬이 생겨났고, 후속으로 방영된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연속해서 히트를 치면서 많은 대중이 한국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

2010년대에 들어 범세계적인 K-Pop 열풍이 몰아치면서 이집트에도 한류 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0년 현재, 총 71개의 한류 팬클럽에 약 87,000명이 활동하면서 현지에서는 응집력 높은 그룹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집트의 한류 팬들은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류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다. 이들은 이제 직접 K-Pop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현지 한국문화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우뚝 성장했다.

K-Fans Got Talent 행사 기념사진 (사진출처: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많은 한국인에게 이집트 하면 아마도 피라미드, �핑크스, 미이라 등 고대 유물과 관련된 것을 연상할 거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선조들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이집트의 문화적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기원전 3100년 전부터 나일강을 따라 발달한 이집트 고대왕조는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받으며 화려했던 파라오 시대의 막을 내린다. 7세기 중엽에는 아라비아반도에서 들어온 아랍군으로부터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근대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며 서양문물과 기존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었다. 이집트는 이슬람이 주류를 형성하지만 10%의 기독교도가 함께 공존하고, 다른 이슬람국가에 비해 종교적 규제가 느슨하기에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가 융성해왔고 아랍문화의 중심지라고도 일컬어졌다.

특히 1940-60년대에는 아랍의 할리우드라고 불리면서 중동지역 영화산업을 주도했으며, 아직도 많은 중동국가에서 이집트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정도로 문화적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전파할 때에는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욕심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만 바라봐 주길 바라고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남의 것을 좋아해 주는 만큼, 남도 나의 것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주이집트 대사관과 문화원은 이집트인의 진행 아래 현지 문화와 한국문화를 비교하는 토크쇼인 ‘앗살람 알라이쿰’ 동영상 제작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동안 주재국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집트의 문화도 한국에 잘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차에 제작된 프로그램이라 현지 상호 문화교류를 이끄는 데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토크쇼 앗살람 알라이쿰 (사진출처: 앗살람 알라이쿰 카이로 유튜브)



토크쇼에 참여 중인 패널 (사진출처: 앗살람 알라이쿰 카이로 유튜브)



이집트 문화를 이해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집트인의 친밀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결국, 남의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우리의 것에 대한 수용성도 한층 높아진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위기와 기회

연초부터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전개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럽, 남북미 대륙을 넘어 이곳 아프리카에 퍼진 지 벌써 수개월째 이르고 있다. 특히 의료체계가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더욱 크게 느끼며, 사람 간의 접촉이나 대외활동에도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 내 한국 교민들도 장기간 폐쇄됐던 국제공항이 열릴 날만 기다렸다가 이미 많이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런 여건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주된 미션으로 하는 재외 한국문화원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집트의 경우, 지난 3월 이후로 발효된 휴교령이 진행 중이며, 7월 이후 단계적으로 문화행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일반 대중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어쩌면 주저하고 있던 새로운 문화 홍보의 길을 열어주었다. 바로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강좌,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다.

처음 온라인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을 때는 이집트의 열악한 통신환경 때문에 반신반의했지만, 예상보다 호응이 높아 이제는 오프라인 행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 강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수업의 질에 있어 다른 분야보다 그 격차가 작기에 오프라인 강좌의 부족함을 잘 보완하는 분야이다. 우리 문화원은 이미 올해 1학기 강좌와 특별학기 강좌를

온라인 한식 경연대회 (사진출처: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온라인 한식 경연대회 최우수 수상자의 작품 (사진출처: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온라인 K-Pop 경연대회 (사진출처: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온라인 K-Pop 경연대회 라이브 송출 화면 (사진출처: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한식 강좌, K-Pop 강좌, 공연영상 방영 등을 연속 추진했는데 전체적인 홍보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 행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입증되었다.

일례로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된 온라인 K-Pop 경연대회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지난 대회보

다 더 많은 팀(86개 팀)이 참가했고, 시청자 수도 2만 건을 넘겨 온라인 대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문화의 주된 수요층인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슬람 국가의 사회적 특성상 공개적인 대외 홍보보다 SNS를 통한 소통에 더욱 활발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쉽게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금방 싫증을 내는 유저를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SNS 시대 환경에 걸맞은 콘텐츠와 적절한 유인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렵게 꽃피운 한류, 키워 나가는 것은 우리 몫

한-이집트 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는 문화원장으로서 기대가 컸던 해였다. 수교 기념행사를 기념해 그동안 여건상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집트 한류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K-Pop 공연과 여타 풍성한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됐던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비단 우리만의 몫이 아님에도, 이집트의 한류 팬들은 행사가 다시금 열릴길 기대하며 한류에 대한 계속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한류'에 대한 남들의 애정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된다. 그동안의 한류 행사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더라도 항상 많은 팬이 찾아와 즐거주었기에,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거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행사로 채운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어렵게 꽃피운 한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자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 또한 그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앗살람 알라이쿰' 토크쇼 동영상처럼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이 땅의 한류는 시들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이집트의 한국문화 팬을 더 많이 이해하고 보듬으며, 사막의 모래 위에 어렵게 피어난 한류라는 꽃을 계속 가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I

이달의 담론

#코로나 시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 뉴노멀 시대의 관광

#코로나 시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 뉴노멀 시대의 관광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던 이들은 더 자유롭게 다니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자유롭게 다녔던 이들 또한 이 전에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우리는 언제쯤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기약 없는 희망 고문 대신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신박한 여행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여행 정보 (사진출처: 외교부)



#집콕에 지친 이들을 위해, 방구석 랜선 여행

- '#현재 아님 주의': 과거 여행담을 SNS에 공유하며 지난 여행을 추억
- '커피 한 잔으로 즐기는 알함브라 궁전투어': 온라인 채널로 여행 가이드와 떠나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형 여행
- '미드나잇 인 파리': OTT서비스를 통해 영화(드라마) 속 장소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감상
- '왓치드 워커(Watched Walker)': 해외 곳곳의 풍경을 담은 1인칭 시점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 여행 채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안전한 국내 여행

- 캠핑 여행: 호텔보다 밀집도가 낮은 캠핑이나 나무집, 펜션, 차량, 비박¹ 등 대체 숙박에서 안전한 소규모(가족형) 여행
- 디톡스 여행: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마트폰

1 비박(biwak: 독일어): 등산 용어로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지새우는 일을 뜻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용 증가하자 자연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체험하고자 하는 여행

• 웰니스 여행 :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여행

#참을 수 없는 해외여행 욕구, 가상 여행

• 항공체험 여행 : 공항 이용과 비행기 탑승, 기내식 체험으로 여행 대체상품 구성

• 가상출국 여행 : 실제 여행지 방문을 기약하며 여행지 관련 콘텐츠를 즐기며 목적지 상공까지 비행하고 회향

• AR/VR 여행 : 온라인 가상현실 여행지 콘텐츠를 통해 몰입도 높은 여행 경험

타이베이-제주 가상출국 여행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타이항공 비행기 테마 레스토랑 (사진출처: AFP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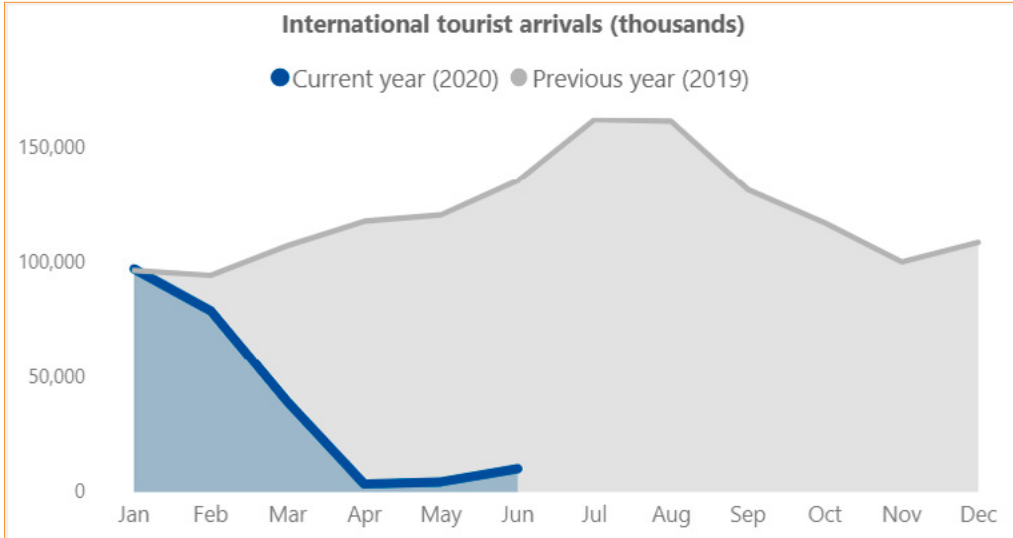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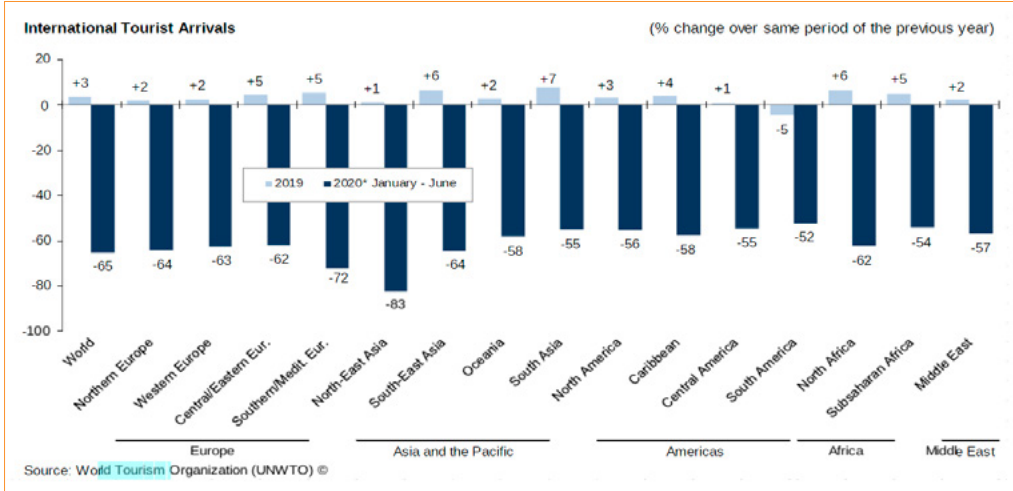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시장

2020년 1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인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감염병의 최고 경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대부분 국가는 방역을 이유로 해외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 조치와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영업중지, 자가격리,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세계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동과 대면, 밀집을 특징으로 하는 관광은 다른 분야보다 타격이 컸다.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 세계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평균 65% 감소했고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4,600억 달러(약 540조 원)에 이른다.

방한 외래관광객 역시 상반기 9만 7,21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7.9% 급감했다. 182개국 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나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던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8.2%나 감소해 한국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해외 관광객 역시 4월 전년 동월 대비 98.6% 감소해 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전인 1980년대 출국객 수준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인류 삶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업무, 학습, 여가생활에서 비대면과 언택트가 기본이 되었으며, 생산과 소비 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전통적 근무와 학습 형태, 개인의 일상에서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이자 일상(뉴노멀, New Normal)을 창조해가고 있다.



2. 세계 관광은 지금 체질개선 중

관광업계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코로나19를 벗어나면 거저효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은 형태로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행의 시기나 빈도, 장소, 활동, 동반자, 교통수단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는 이미 해외여행 축소, 재택근무 확대, 비대면 선호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여행 액티비티 예약 앱 ‘클룩 (KLOOK)’은 예약에서 입장까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위생과 안전을 내세워 홍보하는 호텔도 늘고 있다. 힐튼 (Hilton)은 ‘Clean Sta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호텔들도 ‘대실 서비스(day-use)’나 ‘오피스 패키지’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글로벌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는 코로나19 발생 후

예약이 급감하자 현지 문화체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제공했다. 영상을 보며 외국요리를 따라 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코치를 받거나, 세계적 뮤지컬 배우의 온라인 공연을 감상하는 상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더불어 최근 활성화된 재택근무로 평소 거주지역을 떠나 원하는 곳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행 욕구를 달래는 장기투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항공수요 급감에 맞서 항공사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무료화했고, 여객기에서 항공 좌석을 뜯어내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수익구조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174년 역사의 여행사 파산 소식으로 업계에 충격을 주었던 ‘토마스 쿡(Thomas Cook)’은 현재 온라인 여행사로 피보팅(pivoting)² 중이다. 기존에 호텔, 항공까지 확대했던 사업영역을 온라인으로 집중하고 대리점을 없애는 대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장을 대비해 체질개선에 나섰다.

방역과 경제 회복의 균형점 사이에서 고심하던 국가들은 5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봉쇄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EU와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금지 권고를 부분 해제했다. 중국은 9월 8일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며 국내관광업 재개를 허용했고, 일본은 내국인 대상 여행경비를 보조해주는 ‘Go To Travel’ 캠페인을 추진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시도했다. 태국은 관광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총 224억 바트(약 8,450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국내 관광 경비를 보조하는 ‘We Travel Together’와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 종사자에게 휴가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Moral Support’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격리 기간 제한적으로나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Safe & Sealed’, ‘백신 투어’ 상품 등도 검토 중이다. 하와이는 10월부터 관광객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고, 홍콩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 관광산업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³’을 추진 중이다. 두바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회복과 관광 분야 재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The Great Reset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두바이는 세계관광여행업협회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로부터 건강, 위생, 물리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여행지침을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여행 스탬프’를 획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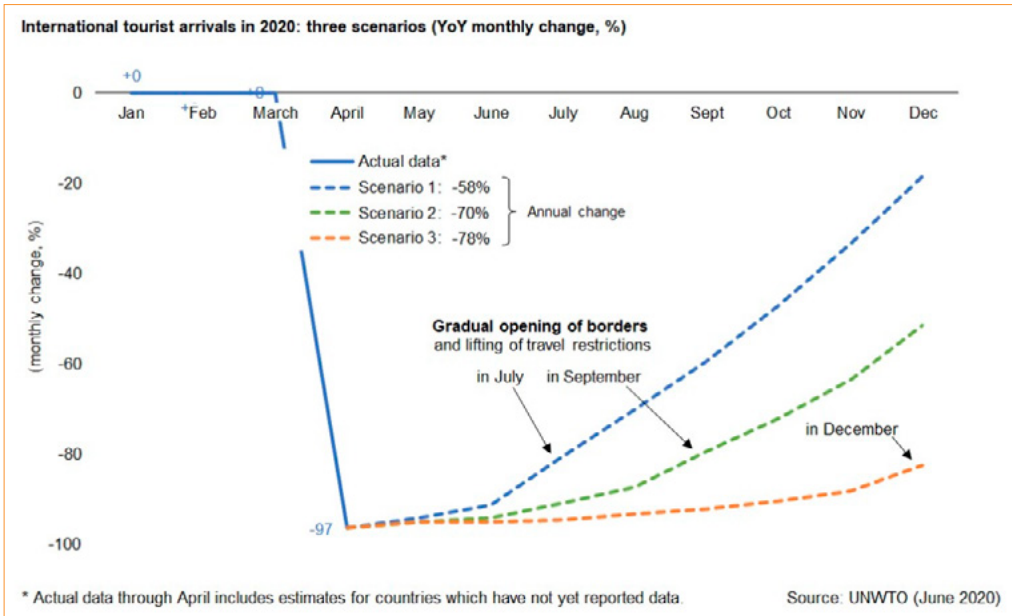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준, 한국관광

최근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며 사실상 바이러스 재확산이 본격화됐다. 9월 21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3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WHO는 최근 확진자 급증의 이유를 인도와 유럽의 바캉스 시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성급한 관광 진흥 노력이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야기한 셈이다.

지난 5월 UNWTO는 현 상황과 여행 제한조치 완화 시기 등 여러 요인을 조합해 제시한 해외여행객 수요 예측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여행 제한이 풀린다고 가정할 때 여행수요는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전문가들 적어도 2년 반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² 피보팅(pivoting):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거나 성과가 저조할 때 주로 행해진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³ 에어브릿지(air bridge), 트래블브리지(travel bridge)라고도 하며 상대 국가와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광객이나 여행객에 대해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로, 두 나라 이상이 서로 격리조치 없이 입국제한을 푸는 조치를 가리킨다. 버블이라는 말은 거품(Bubbles)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되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다. (출처: 네이버사상식사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간 한국관광산업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번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아가 관광생태계의 혁신과 디지털화에 대비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개선될 첫 번째 문제는, 저가 패키지 시장의 퇴출이다. 그간 출혈 경쟁이 난무했던 저가 패키지 시장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실적 중심의 관광정책에 밀려 개선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규모, 개별화, 국내 여행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물량으로 승부를 보던 저가 패키지 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 시대 위생과 안전이 상품 선택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가격 상승 부담을 안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쇼핑을 중심으로 하는 획일화된 관광상품의 다양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방한

외래객의 관심이 한류스타나 쇼핑이 주를 이루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취향을 담은 소규모 여행상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K-POP과 K-드라마가 이끌어온 한류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K-방역으로도 주목받았다. 건강한 한국 음식과 우수한 의료수준을 전 세계에 입증한 덕분에 한국 음식 관광과 의료관광이 재조명받으며 관광시장의 지평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관광지가 아닌 등산이나 트레킹, 산림, 농촌관광 같은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과 건강이 여행의 기준이 되면서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고, 야외라 감염의 우려가 적은 여행지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이 밀집하는 전통적인 관광지보다 다양하게 관광목적지가 분산되면서 우려했던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건강정보 추적관리, 관광지 혼잡예보시스템, 비대면 온라인 관광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이 첨가되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잠재

시키고 여행수요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역 모범국가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기준 제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선진국이라 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관광정책을 참고하거나 답습해왔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나 결과를 분석할 때, 늘 그들의 정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다.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 3대 원칙을 내세워 봉쇄나 이동제한 없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해 세계인들에게 방역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젠 방역 모범국가로서 해외국가에 선도적인 관광정책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관성이 없고, 시기적절하지 않은 정책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이젠 관광 전 분야에 있어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종합대책으로 안전한 여행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세계관광기구(UNWTO)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등 민간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계관광위기위원회(World Tourism Risk Committee)를 구성하고 관광목적지 개방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UN 기관, 각국 정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으며, 전 세계 여행자에게도 'Travel Tomorrow'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동책임을 촉구했다.

관광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물론 외교부와 국토부, 법무부, 중대본은 머리를 맞대고 입국 절차와 여행지에서의 동선이나 위생과 같은 관리 등의 세부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관광 차원에서만이 아닌 보건과 외교, 경제가 걸린 이슈로 더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최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함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브랜드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구축구석 숨겨진 관광지를 세계에 알리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근 유튜브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홍보 영상의 마지막 자막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cheer up the world #meet you later!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한국관광정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대응과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44호.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109&menu_seq=3&board_seq=3
 - UNWTO(2020.8). World Tourism Barometer. vol. 18-Issue5.
 - UNWTO(2020.9). UNWTO Report.
<https://www.unwto.org/news/international-tourist-numbers-down-65-in-first-half-of-2020-unwto-reports>



I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10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국

○ 2020 한류콘 [10.4. | 문화원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영국기반 한류커뮤니티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행사로 K-POP 아티스트 무대와 K-뷰티, 태권도, 영화 등의 문화를 소개하며, 전 세계 댄스커뮤니티의 커버댄스와 한류 인플루언서 참여로 전 세계 한류 팬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한류페스티벌 개최

○ 제15회 런던한국영화제 [10.29.~11.12. | 런던시내 상영관, 온라인 플랫폼 Shift72]

- 약 40여 편의 한국영화 상영(스페셜 포커스, 최신 화제작전, 고전 영화전, 다큐멘터리, 여성영화, 애니메이션, 단편 등), 올해는 코로나19로 한국 감독 초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서 인트로덕션, 토크 등 필요영상을 사전 녹화해 상영할 예정

프랑스

○ 제 15회 파리한국영화제 [10.27.~11.3. | 파리 뫼블리시스 극장]

- 2006년을 시작으로 프랑스 최대 정기 한국영화제로, 지난 10년간 한국영화 장편 260편, 단편 245편 등 총 505편이 넘는 한국 영화를 프랑스 현지에서 소개

○ 한글주간 기념행사, <한글 퀴즈 이벤트> [10.5.~10.9.]

- 10월 한글주간(10.5.~10.11.)을 기념해 한글 관련 온라인 퀴즈 대회 개최, 현지인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글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 제공

벨기에

○ 제8회 브뤼셀 한국영화제

[10.16.~10.23. | 보자르, 시네마갤러리, 시네마테크 룩셈부르크]

- 한국 영화 2020년 화제작 상영회, 여성영화 포커스 시리즈 상영회 개최
- 20여 편(단편 포함)의 우수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 영화제 프로그램 북 제작·배포, 전문 홍보업체·현지 언론과 협력해 영화제 홍보
- 벨기에, 룩셈부르크 내 영향력 있는 예술 기관(보자르, 시네마 갤러리, 룩셈부르크 시네마테크)과 협력해 한국영화 홍보

○ 일러스트 축제(Picture Festival) 협력 전시 [10.29.~11.27. | 문화원]

- 대상 : 일러스트 축제 디렉터 마리 노블(Marie Noble), 현지 일러스트 작가, 현지 언론인, 문화예술 관계자, 현지인 등
- 내용: 현지 일러스트 축제와 협력해 한국을 모티브로 한 유럽·한국의 일러스트 그림을 전시, 현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문화원 홍보 네트워크 강화, 방문 관객층 확대

○ 2020 한류웨이브 협력사업 [10월 중 | 장소 미정]

- 전통 민속놀이 체험, K-POP 부대 행사, 영화 상영, 한식 등 종합적인 한국문화축제 개최

독일

○ 대한독립영화제 [10.22.~10.30. | 베를린 바빌론 극장]

- 대상 : 현지 한국영화 애호가
- 내용 : 한국 우수 독립영화(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 통일을 바라본다 [10.3. | 통일 정자]

- 대상 : 현지인, 한인 동포
- 내용 : 베를린 장벽에 스크린을 설치해 독일 통일과 한국 관련 홍보 영상(가야금, 전통 무용, 사물놀이 공연 등 한국 전통공연 영상을 통해 한국문화를 현지에 소개)을 송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홍보 계기 마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 문구를 독일어 홍보물로 사전 제작해 공연 참석자와 통일 정자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배포해 한국에 관한 관심 환기

○ 2020년 574돌 한글날 기념, <예쁜 한글 엽서 공모전>
[9.28.~10.7. | 문화원 누리집, SNS]

- 기간 : 2020.9.28.~2020.10.2.(제출기간), 2020.10.7.(수상자 발표)
- 대상 :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
- 내용 : '한글'과 관련된 단어, 구, 문장 등이 들어간 엽서를 디자인하는 <예쁜 한글 엽서 공모전> 진행, 단, 펜, 붓, 물감 등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작업한 엽서만 응모 가능

이탈리아

○ 2020 온라인 로마 한국주간 문화행사 [9.28.~10.2. | 문화원 누리집, SNS]

- 내용

- 온라인 전시회 : <조선, 역병에 맞서다>
- 온라인 공연 : 생동감 크루의 <Harmony of Light> 공연 실시간 스트리밍(문화원 누리집)
- 온라인 한국영화상영회 : 한국영화 총 3편
- 온라인 <K-POP 파티 커버 댄스·보컬 대회>
- 영상제작 : 한국 관련 단편영화, 웹드라마, 트레일러 티저영상 등

스페인

○ 온라인 한글주간 [10.3.~10.11.(예정) | 문화원 누리집, SNS]

- 한글날을 기념해, 한 주간 한글과 한국어를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와 퀴즈를 통해 한글에 관한 관심 고취

○ 김춘수 작품전 <파란색 이름> [8.26.~11.13. | 문화원 갤러리 한울]

- 포스트 단색화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춘수 작가가 스페인 전역을 43일간 직접 여행하며 현장의 정취를 담아낸 스케치 시리즈 <파란색 이름(nombres azules)> 작품 80여 점과 붓 대신 손으로 직접 화폭에 물감을 묻혀 작가 특유의 회화세계를 집약적으로 나타낸 시리즈 'ULTRA-MARINE'의 작품 10여 점 전시

러시아

○ 한국문화관광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 <Festival of Korean Culture & Tourism> [9.28.~11.30. | 온라인]

-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관광 홍보를 통한 방한 관심 증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 온라인 축제 전용 페이지 구축

- △ 한국 사진 콘텐츠 공모전 △ K-Tour 랜선 여행 △ 상설공연 △ K-스포츠 △ K-뷰티
- △ 온라인 영화제 △전시 투어 △한국 음식 콘텐츠 제작 등

○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 <온라인 K-POP 경연대회, 랫츠 댄스>

[9.1.~11월 초 | 온라인]

- K-POP 애호가를 위한 온라인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개최
- 1차 예선 결과 발표 : 2020.9.28. 1차 예선 통과 30팀 K-FEST 사이트에 등재
- 2차 예선 결과 발표 : 2020.10월 2~3주 10팀
- 결선 결과 발표 : 2020.10월 말~11월 초



<온라인 K-POP 경연대회, 랫츠 댄스>
포스터, 참가 설명서
(사진출처: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 <온라인 한국독립영화제>

[9.28.~11.22. | 자체 온라인 플랫폼]

- 매주 2편씩 총 8편의 단·장편 한국독립영화 상영
- 상영작품과 상영 계획
- 9.28.~10.4. : <안부(2019)>, <컨테이너(2018)>
- 10.5.~10.11. : <입문반(2019)>, <유월(2018)>
- 10.12.~10.18. : <움직임의 사전(2019)>, <바람의 언덕(2019)>
- 10.19.~10.25. : <Mascot(2019)>, <남매의 여름밤(2019)>
- ※ 10.26.~11.22. : 기 상영 영화 매주 2편씩 재상영

○ 온라인 페스티벌 K-FEST 2020, <한국 국립박물관 VR 투어>

[9.28.~11.30. | 온라인]

- 한국 국립박물관 전시실을 VR 투어를 통해 소개하고, 관련 전시자료 러시아어로 소개
- *국립경주박물관 <황금의 나라, 신라>, 국립익산박물관 <익산 백제실>, 국립나주박물관 <마한 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들다>, 국립춘천박물관 <창령사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등

○ 한글주간 기념행사, <한국 시화전>

[9.28.~10.11. | 온라인]

- 한글날 기념 한국시를 배경으로 한 창작 그림을 접수해 우수작 선정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 수상자 발표일 : 2020.10.15.
- 시상금 : 20,860루블(약 32만 원)



<한국 시화전> 포스터
(사진출처: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 한글주간 기념행사, 한글 캘리그래피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10.9.~11.27. | 온라인]

- 한글날 기념 한글 캘리그래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전파하길 기대, 영상 강의를 활용한 캘리그래피 공모전 추진 (8편 제작 예정)

○ 한지공예 마스터 클래스 비디오 강의 [10.5.~10.23. | 온라인]

- 총 6편의 한지공예 마스터 클래스 비디오 강의를 제공해 한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한지공예의 우수성 홍보

오스트리아

○ 한국문화홍보 웹 포털 개설 [10.1.~ | 온라인]

- 한국문화홍보 웹 포털(www.koreaonline.at) 개설·운영 개시, 한국뉴스, 한국문화예술, 한국어 교육 등 한국문화 홍보콘텐츠 제공(자체 제작 콘텐츠 포함)

○ 온라인 국경일 행사 개최 [10.1. | 온라인]

- 대사관 국경일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 우리정부 정책과 한국-오스트리아 관계, 한국 문화예술 홍보 콘텐츠로 구성된 영상을 제작·상영

○ 한국문화홍보 웹 포털 개설 기념, 온라인 콘서트 시리즈 개최

[10월 중 | 문화홍보관 SNS]

- 한국문화홍보 웹사이트 개설을 기념해 한국 클래식 음악가의 공연과 국악 공연영상을 상영하는 온라인 콘서트 개최

○ 한국문화홍보 웹 포털 개설 기념,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홍보영상 상영

[10.1. | 문화홍보관 SNS]

- 한국문화홍보 웹사이트 개설을 기념해 오스트리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랑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홍보영상 상영

폴란드

○ 한국 문화의 달 [10월 중(예정) |

바르샤바 와쟁키 공원 박물관,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바르샤바 주요 공연장 등]

- 전시, 공연, 영상 상영, 한식 행사, K-POP 등 한국문화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주재국민과 현지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소개
 - 전시 : <영감의 원천>
 - 공연 영상 상영회 : 한-폴 즉흥연주가의 연주, SAC On Screen
 - 한국문화 워크숍 : 문화체험, 한식 워크숍
 - 한국 관련 온라인 패널 토크
 - K-POP 커버댄스 공연

헝가리

○ 한글날 기념 <한글 홍보 포스터 공모전> [10.09.~10.30. | 온라인 공모전]

-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을 홍보하는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해 한글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미주

미국 - 워싱턴

○ Korean Principal Dancer Series 수석무용수 시리즈 [10~12월 | 온라인]

- 협력기관 : 워싱턴발레단,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보스턴발레단
- 내용 : 현지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한인 수석무용수의 일상과 스토리를 담은 영상물 제작·홍보
- * 10월 보스턴발레단(한서혜), 11월 아메리칸발레시어터(서희), 12월 워싱턴발레단(이은원) 예정

○ Filmfest DC(워싱턴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온라인 상영 [10.2.~10.11. | Filmfest DC 누리집]

- Filmfest DC와 협력해 영화제 기간 중 한국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온라인으로 상영

미국 - 뉴욕

○ 뉴욕한국문화원 x 서울시향 <온라인 오케스트라 콘서트>

[10월 중 | 문화원 누리집]

-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서울시향의 온라인 공연 중 'VR 오케스트라' 시리즈 상영
-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영상 2개를 온라인으로 제공,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격주 금요일마다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연 개최, 10월에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영웅', '운명' 등 2개의 공연 개최

○ 한글주간 기념행사, <한글 손 글씨 콘테스트> [10.9.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참가자들이 직접 한글을 사용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 참가자들이 직접 손 글씨로 제작한 한글문구의 사진과 영상을 취합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한글날에 온라인으로 발표

미국 - LA



'2020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 포스터 1, 2
(사진출처: 주LA 한국문화원 제공)

○ 2020 온라인 태권도 품새대회

[9.1.~10.7. | 문화원 누리집, SNS, 유튜브 등]

- 대상 : 미 초·중·고교 학생, 현지인 등
- 내용 : 태권도 1단, 1품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정 품새를 시연하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는 비대면 온라인 경연 방식의 품새대회 개최



○ 한글주간 기념행사,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9.14.~10.16. | 문화원 누리집]

- 대상 : 한국어·한국문화 관심이 있는 현지인
- 내용 : 574돌 한글날과 2020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을 기념해, 미국 내 세종학당 수강생과 한국어 학습자에게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어 학습의욕을 고취
- 총 소요예산 : 약 11,000달러 (약 1,300만 원)

-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9.14.(월)~10.16.(금)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가. 접수 기간 : 9.14.(월)~10.9.(금) ※ Pacific Time (PT) 기준
나. 심사 : 10.13.(화)~10.14.(수), 입상자 발표 : 10.15.(목) ※ 홈페이지 발표
다. 온라인 시상식: 10.16.(금) 예정 ※ 시간 추후 공지
2. **참가 대상**
가. (접수 당일 기준) 18세 이상자로서,
나. 미국 내 전체 세종학당 수강생 또는
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대학생·일반인 포함)
3. **주제** : 한글 또는 한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4. **공모 형식** : 참가자별 말하기 동영상 파일과 서류(Consent and Release Form) 제출
*입문/기초반(2분 이내), 중/고급반(3분 이내)
5. **공모 접수** : 이메일 접수(speechcontest@kccla.org)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포스터 1, 2
(사진출처: 주LA 한국문화원 제공)

○ **추석맞이 온라인 다문화 축제(Under the Same Moon Multicultural Art Festival)** [10.3. | 문화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 추석맞이, 한·중·일 커뮤니티가 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각국의 전통 무용과 음악을 소개하는 문화교류 형식의 온라인 다문화 축제

○ **2020 LA Dance Festival (Virtual)**
[10.9.~10.31. (4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 LA지역의 예술가와 한국 무용가가 4주간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LA Dance Festival에 참여, 한국 무용가를 지원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우수 무용 공연을 소개

○ **<Globalization of the Korean Wave Through Fandom> 온라인 강좌 실시** [10월 중 | 문화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 팬덤을 통한 한류의 세계화를 되짚어 보는 온라인 강좌

○ **<2020 K-Performance Series : Kronos Quartet X Soo Yeon Lyuh>**
[10.29.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해금 연주자 여수연과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 현악사중주단인 크로노스 콰르텟이 함께하는 온라인 특별공연

○ 2020 KCON [10.16. | 온라인]

- 대상 : 주요 영화관계자,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 내용 : 문화산업 관계자 패널 토론 개최

캐나다

○ 한국주간 - 관저 세프 한식 웹툰 책자 제작 [10.1.]

- 기존에 연재된 웹툰을 책으로 출판해 한식 홍보용으로 활용

○ 한국주간 - 제 3회 오타와 한국영화제 [9.30.~10.10. | 오타와 Cineplex, 온라인]

- '영화가 만든 세계'라는 주제로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총 8편의 영화 상영
- 오프라인 개막 이틀간(9.30.~10.1.) 극장에서 최신작 2편, 애니메이션 2편 상영
<반도(2020, 연상호)>, <82년생 김지영(2019, 김도영)>, <꿈(2020, 김강민)>, <점(2017, 김강민)>
- 온라인 (10.2.~10.10.) <언더독(2018, 오성윤/이춘백)>,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2017, 김석윤)>, <뷰티인사이드(2015, 백종열)>, <마녀(2018, 박훈정)> 등 4편 상영

브라질

○ 브라질 K-EXPO 2020 [10.23.~10.25. | 문화원 유튜브]

- 2017년부터 매해 개최되는 역점사업으로 온라인 행사를 추진해 다양한 한국문화콘텐츠를 라이브로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
- 한국 관광 한국의 주요 관광지 실시간 방문체험
- K-POP 추첨을 통해 아이돌과 채팅·전화통화 기회 제공, 아이돌 특별인터뷰 영상 제공, 팬들과 함께하는 미니게임 진행 등의 다양한 참여형 미니이벤트 진행
- 문화공연 세종문화회관 우수 공연 영상(무용, 인디밴드)과 다양한 한국문화공연 영상 송출

○ 제3회 세종학당 원페스티벌 [10월 중 | 문화원 유튜브]

- 한글날을 기념해 문화원 내 한국어 수강생과 브라질 내 세종학당 우수학습자를 초청해 한글 관련 영화 관람, 백일장, 체험 활동 등 관련 행사 개최

아르헨티나

○ 하반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8.8.~12.4. | 세종학당 온라인 교육시스템, ZOOM]

-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 제공,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한 한국어 강좌 총 18개 반 운영

○ 한글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9.25.~10.9. | 온라인, SNS]

- 한글날 소개와 한글날 축하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 개최, 게시물에 '좋아요'하고 개인 계정의 SNS에 공유한 후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 참가 가능,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제6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 페스티벌

[10월 중(미정) | 온라인, 시내 한식당 30곳]

- 대상 : 언론·요식업계 인사, 유튜브 인플루언서, 일반인
- 내용 : 현지인에게 한식에 대한 접근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식 주간 개최, 지역 내 30여 개 한식당과 협력해 한식 메뉴 프로모션(비대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온라인 <한식 TV> 운영으로 한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한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비 유도

○ 기획영상 <온라인 문화원>

[9월~12월 매달 1~2회 |

문화원 누리집, SNS]

- 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는 <온라인 문화원>을 운영해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온라인 문화원> 포스터 (사진출처: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중국 - 북경

○ <2020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류회>와 <베이징국제관광박람회 한국문화·관광사진전> [9.1.~12.31. | 온라인]

- 한국문화·관광사진 100점(문화원 20점 제공), 동영상 7점 등을 온라인으로 홍보, 문화원 한지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 진행(9.5./ 9.7., 2회)
- ※ 무역교류회 한국관 부스 설치 운영(9.3.~9.7.), 주중한국대사관과 연계해 진행

○ 온라인 한국어 정규 강좌 개최 [10.12.~12.12.(9주간 진행)]

- 대상 : 문화원 수강생 350명
- 내용 : 딩딩(钉钉, DingTalk)을 플랫폼 활용해 화상 강좌 운영,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등 정규과정 14개 반 개설

○ 2020 국경절·국군의 날 기념 문화공연 [10.13. | 주중한국대사관]

- 대상 : 중국 주요 정부기관·유관기관 인사 500명
- 내용 : 리셉션,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한중 전통악기 공연 개최 등

중국 - 상하이

○ 2020 후난(리링) 국제 도자산업 박람회, <한국문화홍보관> 운영 [9.28.~10.3. | 중국도자국국제컨벤션센터]

- 내용 : 도자기 관련 전시, 체험 등
- 규모 :
 - 면적 / 관객 : 총 30,000㎡, 국제관 4,500㎡ (4관) / 약 20만 명
 - 참여 국가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태국 등 총 18개 국가 참여

홍콩

○ 한국 10월 문화제(Festive Korea)

[10~11월 | 문화원, 홍콩 내 주요 문화예술 시설, 온라인]

- 공연, 전시, 한식, 영화, 스포츠 등 약 22개의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홍콩 내 최대의 한국문화 축제 *코로나로 대부분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

○ **한식 명인 강좌** [10.14. | 온라인(문화원 유튜브 등)]

- 이하연 김치 명인을 초빙해 깍두기, 파프리카 백김치, 나박김치 등 김치 식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식 배추김치를 만드는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

일본 - 동경

○ **국제심포지엄: 외국어교육과 학습연구** [10.31.~11.1. | 온라인 개최(zoom)]

- 대상 : 한국·프랑스·독일·스페인·중국 교육관계자, 일본 문부과학성 정책담당관, 현지 언론사 등
- 협력기관 : 괴테 인스티튜트, 알리앙스 프랑스,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 등
- 내용 : 제 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중요성 연구 발표

일본 - 오사카

○ **한글날 기념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전·워크숍>**

[10.5.~10.17. | 문화원 미리내갤러리]

- 한글날을 기념해 긴키대학 문예학부 예술학과 안기영 교수와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소속 회원 40명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 전시, 전시 기간 중 10월 10일(토)에는 안기영 교수가 한글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한글을 모티프로 하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한글을 예술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 병행 개최

○ **2020년 한글날 기념 리셉션 공연 개최** [10.8. | 오사카제국호텔 연회장]

- 대상 : 한일 우호친선에 이바지한 주재국 인사 200명
- 내용 :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 주최 한글날을 기념한 리셉션 공연(판소리, 한국 전통음악, K-POP 커버댄스 공연 등) 개최

○ **K-CULTURE e아카데미**

[9.15. 촬영 후 10월 중 공개 | 문화원 SNS]

- 문화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보자기, 사물놀이, 가야금, 전통 무용, 민화, 한지 공예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

*계재 : 7.28. 보자기, 8.28. 사물놀이, 9월 중 판소리

e아카데미 사물놀이 강좌
(사진출처: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인도

○ 한글날 기념행사 [10.8.~10.9. (예정) | 온라인]

- 한국어 노래자랑, 글짓기대회, 한국 관련 퀴즈 대회 등 진행

싱가포르

○ 한글주간 기념행사, 한국어 백일장 [9.17.~10.7. | 비대면 행사]

- 응모자가 쓴 글을 이메일로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으로 심사과정과 시상식 진행

인도네시아

○ 한류 웨비나 <인도네시아인의 눈으로 본 한류> [10.8. | 문화원 SNS]

- 교수, 기자 등 한류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주제로 웨비나 개최

○ 한글날 기념, <한국어 퀴즈 대회> [10.12. | 문화원 SNS]

-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퀴즈 경연대회 개최

베트남

○ 베트남 전역 세종학당 워크숍 개최 추진 [11월 중 | 하노이(잠정)]

- 기간 : 행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일이 촉박해 11월 개최 추진
- 대상 : 베트남 내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관계자 150여 명
- 내용 :
 - 베트남 내 세종학당과 현지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베트남 세종학당의 질적·양적 역할 강화
 - 세종학당 사업 소개, 우수 운영 학당 발굴·소개, 현지기관과 네트워킹 행사, 특별 이벤트 (예: 우수 학당 표창) 등

필리핀

○ 10월 한국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한국영화 특별 상영회>

[10.17.~10.23. | 별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박스 오피스 히트작, <베테랑>, <신과 함께-죄와 벌>, <극한직업> 등을 상영하는 온라인 한국영화 특별 상영회 개최

○ 2020 한-필 문화교류축제 [10.31. | 문화원 유튜브 채널]

- 1부: 한국어, 따갈로그어 말하기 대회, K-POP 커버댄스, 보컬 경연대회 진행
- 2부: 콘서트 개최(한국, 필리핀 전통 무용, 음악 공연, K-POP, 한국 퓨전 국악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한국전쟁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ThankyouPhilippines

[10월 중 | 문화원 유튜브 채널]

- 최근 발생한 반한 해시태그에 대한 간접대응의 일부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상영

태국

○ 한글주간 기념행사, <대사배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10.8. | 문화원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중계]

- 대상 : 문화원장, 말하기대회 본선 진출자(일반인, 학생 등)
- 내용 : 2020년 한글날을 앞두고 기존 <세종학당 말하기대회>를 확대한 <대사배 온라인 말하기대회>를 개최, 동영상으로 예선 심사 후 말하기대회 본선을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 관광 사진 온라인 경연 [10월 중 | 온라인]

- 대상 : 모든 태국인
- 내용 : 한국 관광 시 먹은 한국 음식 사진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

카자흐스탄

○ 한국문화원과 함께 떠나는 한국여행 - 지리산 [10.1.~ | 온라인]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주재국민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여행 사진전 개최

UAE

○ 제574돌 한글날 기념행사 [10.4.~10.11. | 온라인]

- K-POP 가사, 드라마·영화 대본, 문학작품 등을 활용한 한글 손 글씨 공모전 개최,
국립한글박물관 제작 '한글 창제 영상(8분 내외)' 시청 후기 SNS 공유 이벤트,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온라인 한글 퀴즈 대회 등 행사 진행

오세아 니아

호주

○ 한글날 기념 <한글사랑 이벤트> [9.7.~10.9. | 온라인, SNS]

- 대상 : 한글에 관심 있는 호주 거주자
- 내용 : 좋아하는 한글 단어나 문구를 직접 쓰거나 꾸며 이메일로 이미지 제출,
참가자 중 약 10명을 선정해 한국의 저명한 캘리그래퍼 여태명 교수가 직접 대상자의
이름을 손수 작업해 추후 우편으로 발송

나이지리아

○ 인디밴드 아도이의 <VIVID> 공연 상영 [10.13. | 문화원 유튜브]

- 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시리즈 중 하나로, 인디밴드 '아도이'의 공연영상 상영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한양 그리고 서울> 국악공연 상영 [10.6. | 문화원 유튜브]

- 한국-나이지리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국악 공연영상 상영

○ 한글날 기념, '한글' 소개 카드뉴스 제작 [10.9. | 문화원 누리집, SNS]

-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창제와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제작, 홍보

○ 매듭공예 6차시 영상상영과 완성작 경연대회 개최 [10.12.~10.31. | 문화원 인스타그램]

- 매듭공예 6차시 영상을 보고 집에서 만든 공예품을 사진으로 업로드, 온라인 경연대회 형식으로 20명을 선정해 상품권 제공

매듭공예 배우기 강좌 포스터
(사진출처: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이집트

○ 할랄 푸드 페스티벌 [10.21. | 문화원 온라인 홍보 채널]

- 대상 : 할랄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 주재국 정부 인사, 일반 시민
- 내용 : 국내에서 생산되는 할랄식품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식품의 신규 수요 창출

○ Kulture Talks [10.14.~10.28. | 문화원 온라인 홍보 채널]

- 한국의 미술, 패션, 음악 총 3개 분야의 예술가와 관련 종사자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10월 한 달간 매주 소개

Vol.8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0년 10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0년 10월 12일

발행인

박정렬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강민영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양상근 |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장

정주영 |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